社說

切迫한三總集會解禁問題 (二)

一

一九二四年、勞農、靑年兩總同盟의創立은 우리의社會運動史上新紀元을지엇스며 이러한事實에對한當局의對策도 엇더나無定見한禁壓일뿐이엇다 姑息的手段을外와오는態度를依然히固執하엿다 그러고 그는相當한存在의理由가잇섯슬것도否定하지못한다 그러나流動하는社會의情勢, 推移되는民衆의要求는오늘에일으러 一九二四年의그것과는 膠着되지아니하엿다 다만當局의認識이 라든그時의社會는 오늘의社會와 엇더하며 그에反映되는民衆의思想과訓練도 오늘이當時에比할바가아닌것은누구나 가어찌否認할수잇스랴! 더구나 勞農運動의分立、靑年運動의分化가 일으러 이러한推移가 一時的의 必然的인 過程이엇다 우리는 이에對하야 民衆의意識도 相當히 進步되며 이로부터 날로나오는 實際的行動도 漸次로 秩序를保持하고 나오게되는 것은 實로今昔의感이업지못하다

二

우리는 이에 臨하야 民衆的機關과 불지아니하여도 우리의 當局하고 잇는 體驗이 넉넉하 이것을 證明하고 남음이 잇다 그러나 지난 一年間에 움직여 온 朝鮮社會의 諸情勢를 회고하여보자 우리社會運動史上에 意味깁흔 轉換이 開始된 民族單一運動의 展開를 보아라! 그의媒介形態인新幹會의旗人발이 날니우자 朝鮮民衆은 洪水의勢로이에 糾合하야 鯛集하여왓다 지난年末에新幹會本部에서開催된支會代表의懇談會는 이를 證하고 남음이 잇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킴인가? 女性運動에 統一機關인 槿友會의 成立은 어떠하냐? 이는 實로 朝鮮 女性의 新紀元이 되엿다 그리고 少年運動의 統一도 마찬가지이다 少年總聯盟의 組織을 보아라 이것은 우리社會의 部門運動이 統一되는 가운데 實로 民族單一運動에 對하야 그 組織과 그 任務에 對한 이로 인하야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모든 部門運動의 新形勢에 對하야 實로 그 形勢에 對한 組織을 가지고 部門的 運動으로서 民族的單一運動에 到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朝鮮社會의 重大한 事實이냐? 勞動者農民大衆의 全國的 組織이 그 最高指導機關으로서 그 政治的 鬪爭을 끌고 나아가랴는 것이 決定的 目標를 指示하엿스며 이를 前後하야 지난一年을 遡及하야 新幹會의 確立은 거의 過去一年을 畫期的으로 보앗다 斷乎히 朝鮮社會의 運動 이를 얻지 못하엿다

三

우리는 이러한 民衆의 訓練과 態度의 進步를 보아 여러가지로 이를 認하여왓다 一年을 通하야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잇섯든가 一九二四年當時의 集會解散의 風에 比하야 볼진대 바로 非常한 進步가 잇섯다 그러나 中央協議會의 開催許諾 것은 一九二四年 當時 民衆大會가 禁止되고 집작하게 된 것이다 그 것을 보아 가 改善되여 오는 것 이 아니라 客觀的 新幹會支會大會에서 討議된 事項의 範圍가 일마나 그 討議의 自由의 擴大되엇다 는 것을 보지 아니하엿는가? 實로 民衆은 言論集會의 벌시 킨 것 이 엄지 못 하여 아직도 그 여기에 잇서서 아직

奉晋戰局은 依然히 非安協狀態

涿州開城은 局部的解決

(北京三十一日發) 二個月半이라는 長期에 亘하야 籠城을 繼續하든 涿州의 山西軍은 드되어 奉天軍과의 妥協이 成立되어 城을 引取하기로 되어 雙方의 司令官인 傅作義、萬福麟 兩氏의 連名으로 通電을 發하엿다 對하야 長久한 攻圍戰으로 涿炭에 들어 苦痛을 밧는 涿州城內에게 이 以上 더 苦痛을 줄 수 가 업슴으로 城軍의 生命은 安全히 保障을 엇더고 軍隊를 奉天軍에 改編할 것을 承諾하엿다 奉天軍은 涿州의 攻擊을 斷念하고 對晋軍에 作戰으로 그의 解決을 急히 한 結果 妥協하게 된 것이다 一時的이 아니다 對晋戰爭에 對하야 國을 出하야 오래동안 北京에 依하야 外戰의 局外를 堅持하야 오든 涿州에 對하야 지 는 다 아니라 다른 涿州가 그 안에 들어 가 全體的으로 解決할 것도 아니며 더 局部的으로 解決된 것이더라 그라나 이 것 을 가지고 山西와 奉天에 集中할 수가 잇게되엿다 派가 援晋하엿다 고 보는 것은 錯誤이다 他者間에는 아직 妥協說 外 자 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涿州 一 圭만 獨立 하야 局部的 으로 解決된 것 이더라

楊宇霆奉天行

(北京二日發) 楊宇霆氏는 時局問題其他諸懸案을 解決을 爲하야 二日午前十一時에 北京을 發하야 奉天에 向하엿더라

아니한가? 그 人間의 本能的 要求인 이로 말미암아 社會文化의 協同的 步가 實現되는 것이다 이 것을 抑壓하야 그 本能的 要求를 阻害하는 것은 도리어 正常으로 混亂한 狀態를 引致하는 것이다 「暴」 으로 二에 히 力이 要求하게 되며 더욱 惡化를 助長하게 되는 것은 明白하다 一二 갈은 더욱 要求하야 限의 要求를 이다 라고 하는 바이다

엇지 議論은 只且 之 ... 團民、靑年三總同盟에 對한 集會禁止가 을노 一九二四年 當時의 그대로 남어 잇슴니다 그 이 것이 時期의 問題라고 繼續하게지마는 바로 그 集會를 解禁할 時期에 達하엿다 이에

蔣汪關係의 珍奇한內容

中國革命史의 一異彩

(上海一日發) 廣東共產黨事件의 兩頭人物이 되어 各方面의 視線을 全部 向하게 되든 汪兆銘氏가 아즉도 風說이 不一한 汪兆銘氏가 不日歐洲로 간다는 說이 一便에서 傳하든 것이 事實이 오 蔣介石氏의 氏도 安全에 勸하야 그 로 一九 二 四 年 九 月에 廣東 同 時 에 一 便 主 義 的 對 立 狀 態 로 事 實 에 서 도 서 로 一 致 하 야 現 在 에 至 한 것 이 라 면 이것 이 不 可 能 이 업 는 것 이 더 라 ... 蔣介石氏의 兩人關係가 密接하게 되어 大勢를 容하야 上海에서 汪兆銘의 握手를 經 하 야 各 方 面 의 非 難 이 自 身 에 聚 集하는 것도 不拘하고 더욱 이 廣東事變의 非汪論이 盛起하야도 그 의 提携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裏面에 자못 珍奇한 因緣을 새로 매진 것이 잇서 汪氏가 그러한 것이 다 蔣氏가 日本에 가서 汪氏와 會見하고 蔣汪兩氏의 提携를 圖謀하야 紹介한 것은 勿論이나 그것보다도 宋子文氏로부터 已에 이 蔣 氏 의 宋 美 齡 과 의 結 婚 을 仲 介 하 야 夫人인 陳璧君에게 紹介하야 宋美齡女史의 新交情을 맺게 되고 보니 各各自己의 夫君에게 그럴 듯한 結交의 內容을 말하고 다시 그 夫君들의 關係도 親密하게 되어 모든 勢力을 鞏固하게 된 것은 自然한 事情이 다 그 러 하 야 宋 氏 는 蔣 氏 에 게 汪 氏 를 그 러 케 한 이 두 汪 君 에 게 그 政 界 의 一 變 한 個 人 事 情 으 로 長 期 를 保 持 하 게 되 엿 다 고 이 것 은 蔣 汪 이 되 어 는 것 은 이 것 이 다 高 尙 한 理 解 를 엇 게 된 것 이 라 는 上海에 召集되는 第四次全體會議豫備會議의 出席은 遲遲하야 蔣 介 石 側 은 汪 氏 와 上 海 에 會 하 야 가 서 黨 의 統 治 한 것 이 니 過 去 數 三 年 동 안 에 뿌 리 를 박 은 錯 雜 한 問 題 는 浮 雲 流 水 가 더 一 異 彩 됨 것 은 中 國 革 命 史 上 의 一 異 彩 를

臨時部隊로 恒久駐屯키로

日本派中軍

더하는것이더라

(東京電) 目下北京、天津方面에 在한 日本의 中國駐屯軍은 步兵八個中隊及電信、鐵道兩隊各一個中隊都合計約一千八百名인 中步兵三個中隊及電信、鐵道는 臨時部隊이나 恒久的으로 그만한

瑞典同盟罷業

賃銀引上을 要求코저

(스톡홀름二日發) 七日當地에서 一萬七千의 製紙會社職工及四千人의 工夫는 工場閉鎖에 依하야 爭議는 開始되엇는데 原因은 賃銀引上要求에 對한 會社의 對抗이라

一九二七年의 世界大勢 (三)

◇ — 安在鴻

거의完全히 世界化한 國際政局의 律動의 機構에 잇서서 이 大小의 八個事件은 항상 世界大의 政治的 氣見을 通하고 잇는 것은 이것 다 시 表出할 必要가 업슴을 로 한 다 그 리 고 이 大 小 事 件 을 核 心 으 로 擴 大 鏡 的 觀 察 을 함 으 로 써 그 周 圍 에 放 射 된 世 界 大 의 氣 見 을 披 露 케 되 는 것 이 다

南京砲擊事件은 英國의 帝國主義가 米合衆國과 日本帝國과 及 佛、伊 諸國外지를 誘惑하여 反省하게 되는 것이 업시 新戰爭의 渦中에 끌어 들어가서 客觀的으로 大英帝國의 安定을 危害케 하는 獵犬을 提供하든 大帝國은 무엇보다 勞 를 하게 하려는 데 에 잇 든 것 이 다

蘇露聯邦會議以後에 잇서서는 米國의 協同을 어더서 共同 革命運動에 對한 武力的 彈壓을 實行코자하엿고 또 日本이 그 의 자 랑 인

當年의 英國追隨者的 本領을 發揮하여주기를 바랏슬 것이다 南京占領事의 勢 으로 하 야 곱 一 般 的 排 外 의 狂 態 를 發 露 하 여 서 米 日 諸 國 으 로 「陷城 의 師 」 를 出 動 치 아 니 할 수 업 시 한 것 이 엇 드 라 면 英 帝 國 은 一 氣 에 「 쏘 베 트 」 와 「東 方 叛 亂 」 의 中 樞 機 能 을 粉 碎 하 고 世 界 革 命 運 動 外 지 도 露 國 의 背 馳 와 갑 을 가 지 不 合 衆 國 의 利 害 의 合 致 가 업 고 들 이 어 多 數 折 케 하 려 하 엿 슴 은 것 이 다 그 러 나 中 國 에 잇 서 서 英 帝 國 과 아 무 利 的 國 際 正 義 를 依 然 히 高 調 하 는 聲 明 을 가 젓 슬 것 이 다 하 물 며 日 英 의 同 盟 斷 棄 以 來 兩 國 과 新 嘉 坡 의 軍 港 과 및 其 他 의 各 方 面 에 서 敗 다 排 除 敵 對 를 당 하 고 잇 든 日 本 으 로 서 는 近 者 자 못 冀 繫 味 를 加 하 여 오 든

로부터 거더채이어버린 英帝國은 바로 「 못 소 리 니 」 의 伊 太 利 로 부 터 多 少 의 支 持 를 바 들 이 잇 슬 지 라 도 獨 力 으 로 西 歐 의 中 國 民 을 躍 驅 하 기 에 는 넘 우 無 謀 한 冒 險 이 어 슨 것 을 알 기 만 큼 되 엿 다 그 는 二 萬 에 넘 는 東 騎 한 軍 隊 外 지 도 撤 退 하 면 서 局 面 을 수 지 부 지 하 고 長 江 封 鎖 外 지 도 斷 念 하 고 말 게 되 엇 다 그 는 反 抗 하 는 四 億 의 中 國 民 은 커 녕 動 搖 되 는 三 億 의 印 度 人 의 氣 勢 에 도 外 아 모 當 年 의 威 嚴 을 보 일 수 업 시 다 만 崩 壞 의 遲 延 을 一 大 韓 避 喜 를 感 히 면 서 오 직 感 傷 的 인 威 脅 을 그 와 革 命 防 止 의 運 動 에 하 게 되 엇 다 北 京 에 서 의 大 使 館 襲 入 事 件 을 계 결 일 에 에 는 이 미 狼 作 을 으 로 蘇 露 을 援 出 하 야 서 濟 蒙 의 발 을 가 장 重 大 한 利 害 關 係 를 가 진 日 本 으 로 「 赤 化 防 止 」 의 義 陣 를 드 러 하 고 米 合 衆 國 으 로 도 또 한 赤 化 防 止 의 共 通 한 利 害 의 미 테

武力干涉

의 實行코 저 하 엿 고 또 日 本 이 그 의 자 랑 인 니 들 어 서 서 國 民 黨 에 對 한

日支親善

을 위 하 려 는 면 外 外 지 英 帝 國 의 忠 僕 노 릇 을 하 자 는 理 由 가 업 섯 다 米 國 은 日 本 으 로

對露開戰

의 合 理 化 를 圖 謀 하 는

英佛諸國

의 帝國主義的 聯盟 에 依 하 야 露 國 과 의 斷 國 을 하 게 되 엇 다 그 것 이 다 ... 「 바 둑 」 을 通 하 야 英 國 의 의 苦 心 의 成 果 인 「 쏘 베 트 」 露 國 世 界 的 包 圍 網 으 로 서 急 激 히 또 悠 然 히 그 의 寧 息 을 오 게 하 려 고 한 것 이 엇 다 「 아 — 코 스 」 하 우 스 」 의 侵 入 英 露 國 交 斷 等 이 모 다 이 政 策 의 持 續 인 것 은 더 말 할 것 이 업 다 그 리 고 波 蘭 에 서 의 露 公 使 暗 殺 事 件 은 곳 「 발 칸 」 諸 國 으 로 부 터 波 蘭 「 赤 을 도 바 ㅅ 아 」 等 을 지 나 서 「 발 칸 」 諸 國 에 외 지 버 친 「 人 間 的 萬 里 長 城 」 의 ㅇ 의 豫 備 한 爆 薬 에 依 하 야 露 國 과 의 隔 離 를 꾀 하 여 이 여 한 것 이 다 그 외 英 帝 國 의 「 黑 手 가 」 움 직 이 고 잇 서 이 에 類 似 한 諸 事 件 의 背 後 에 는 것 은 識 者 가 모 다 아 는 바 이 엇 다 그 러 나 어 모 든 事 件 에 關 하 야 어 미 諸 國 의 側 의 陰 謀 를 「 쏘 베 트 」 露 國 의 指 導 者 들 은 「 쏘 베 트 」 露 國 에 對 하 야 參 加 하 기 를 거 부 하 엿 고 그 政 策 을 斷 行 하 야 모 든 威 力 이 업 서 섯 다 어 리 하 야 英 佛 의 對 立 그 의 破 裂 의 危 機 는 勢 力 의 對 立 이 라 하 기 보 다 오 히 려 那 康 을 保 維 하 게 되 엿 다 이 러 한 그

帝國沒落

의 英大帝國 의 崩 壞 의 步 를 되 고 또 老 衰 한 英 帝 國 의 支 配 者 階 級 은 自 耳 義 를 通 過 에 向 하 야 하 려 는 「 愛 爾 蘭 」 의 獨 逸 에 向 하 야 낫 듯 거 운 護 國 家 를 넘 으 키 어 가 면 서 膨 脹 된 閣 議 의 責 任 을 關 係 의 利 便 及 實 力 을 가 지 지 못 하 엿 다 大 英 帝 國 의 當 時 獨 逸 人 의 武 力 에 依 하 야 곤 란 하 면 이 러 하 매 大 英 帝 國 의 崩 壞 의 비 탈 에 서 하 염 업 시 헐 떡 이 고 잇 다 「 쏘 베 트 」 露 國 과 英 佛 의 根 本 的 對 立 을 契 機 로 英 米 英 佛 의 對 立 의 發 展 을 또 생 각 하 지 아 니 할 수 업 는 것 은 아 닌 가 ? 「 제 네 바 」 에 서 의 海 軍 軍 縮 會 議 에 서 新 興 한 米 合 衆 國 의 都 市 的 大 陸 의 出 에 當 面 하 야 서 衰 頹 困 窮 의 빗 을 그 의 갓 흔 運 命 과 한 가 지 그 의 最 後 的 인 無 抗 을 하 며 서 自 本 主 義 를 지 아 니 할 수 업 는 곳 에 는 資 本 主 義 國 家 相 互 의 사 이 에 잇 서 서 도 어 미 그 만 큼 의 經 濟 를 못 게 되 지 아 니 하 엿 는 가 ? 鳴 呼 ! 古 來 史 上 에 雄 大 한 英 大 帝 國 이 資 本 主 義 商 業 的 하 고 잇 고 英 帝 國 ! 「 土 耳 中 心 으 로 轉 變 하 는 下 世 界 의 情 勢 !

移民生活實況

內務省에서 調查한 것

伯刺西爾

(東京電) 內務省에서는 海外移民을 獎勵코저 明年度豫算에 約二百萬圓의 移民保護助成費를 計上하고 明年度부터 組織的 統一 方法으로써 恒久的 大規模의 移殖民計劃을 斷行할터인데 海外移民組合聯合會의 海谷事務理事 其他를 南米伯刺西爾方面에 派遣하야 移民地의 實地를 踏查한 後 새로 土地도 購入하고 學校病院其他文化施設等을 企圖할러인바 最近伯刺西爾에 잇는 日本移民의 生活狀況 其他에 關하야 社會局에서 調查한 바에 依하면 如左하다더라

一、勞動

勞動은 日本의 農夫(天 外 水田)의 草取 돌하는 勞動에 比하야 쉬 우 고 또 契約 勞動 에 依 한 借 金 도 入 耕 後 一 年 外 지 返 還 할 수 잇 다

一、氣候

日 本 內 地 에 比 하 야 良 好 하 다

一、愉快한 點

生 活 難 이 업 스 니 이 것 은 故 國 에 比 하 면 가 장 愉 快 한 것 이 라 는 것 은 거 진 一 致 한 意 見 이 더 라

一、苦痛

兒 童 敎 育 의 困 難 、 言 語 의 不 可 解 、 食 事 의 相 違 、 足 에 「 門 쇼 」 (虱類)等이 들어가는 것 그 리 고 苦 痛 되 는 것 에 關 하 야 移 民 會 社 에 對 한 各 種 의 不 服 이 並 發 하 는 中 에 도 移 殖 民 際 에 携 物 의 携 帶 를 制 限 하 는 것 이 더 라

◇實地踏査

一、「모 지 아 나 」「 熱 네 라 쓰 지 나 」 耕 地 、 移 民 數 百 九 十 家 族

◇移民生活

一、生 活 狀 態 는 一 般 으 로 日 本 에 比 하 야 良 好 한 데 珈 琲 園 에 잇 는

英國歲入不足

(倫敦三十一日發) 英國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一九二八年三月三十一日로써 終了될 本會計年度의 初期인 九月乃至十二月末現在의 吉利國歲入不足額 一億五千萬磅을 超하엿는바 右不足額은 昨年同期의 不足額에 比하야 四千萬磅에 近한 增加를 示한 것으로 歲入減少의 主要原因은 財界所得稅收入의 減少이라

議會無事經過에

內閣은 自信이 잇는 듯

(東京電) 政府는 今期議會를 될 수 잇는 대로 無事히 通過하려는 方針下에 田中首相을 盟主로 閣僚政務官、與黨幹部等은 各方面에 亘하야 努力하야 오든바 最近에 일으러 나누어 各方面에 運動하야 오든 바 在野黨側에 對하야 政府로서 今期議會가 無事 經過하리라는 見方이 잇서 前途를 樂觀하게 되는 것 이 라 고 하 면 서 左 와 如 히 意 見 을 述 하 더 라

現在議會의 形勢는 民政派二百二十五名 政友會百八十九名으로 野黨側이 優勢하나 中 立 其 他 新 正 俱 樂 部 의 二 十 七 名 을 加 하 면 野 黨 은 二 百 四 十 七 名 이 되 어 그 差 는 五 十 八 名 의 多 數 에 達 한 다 그 러 나 此 는 表 面 의 數 이 오 事 實 은 新 正 俱 樂 部 二 十 七 名 中 畢 竟 民 政 黨 과 政 府 不 信 任 의 投 票 外 지 行 動 을 共 히 할 者 는 革 新 系 의 大 部 分 과 中 正 派 의 極 少 部 分 으 로 僅 히 十 名 內 外 에 不 過 하 고 他 의 多 數 는 不 信 任 案 反 對 의 態 度 를 가 지 고 잇 슴 으 로 아 니 라 野 黨 聯 盟 의 急 先 鋒 이 라 고 어 떠 케 하 든 지 無 事 經 過 하 리 라 는 自 信 을 어 든 듯 한 바 某 閣 僚 는 議 會 는 리 라 고 하 면 서 左 와 如 히 意 見 을 述 하 더 라

一部에서 그러한 計算은 ... 歸 하 는 新 正 俱 樂 部 의 態 度 如 何 가 不 信 任 案 可 否 의 分 岐 가 되 는 것 이 다 ...

不信任案通過는

疑心할餘地도업슬 듯

(東京電) 休會後再開議會에 對하야는 政府는 早 부 터 野 黨 에 서 問 題 를 提 出 할 것 이 로 그 에 잇 는 新 正 俱 樂 部 의 態 度 如 何 가 政 府 의 重 大 問 題 로 民 政 黨 을 提 出 하 야 大 擊 滅 하 리 라 고 努 力 하 엿 는 데 其 內 容 을 公 開 케 할 理 由 는 其 內 容 에 依 하 야 歲 及 幾 多 의 刑 事 問 題 等 에 依 하 야 某 이 事 는 其 內 容 이 體 합 으 로 나 의 斷 할 수 업 고 文 相 의 選 擧 運 動 도 民 政 黨 을 出 한 橋 本 喜 造 、 平 野 光 吉 兩 氏 의 除 名 으 로 後 方 에 서 先 着 手 를 한 形 勢 로 빗 서 關 野 兩 派 의 色 別 은 거 의 確 定 되 어 如 何 한 政 府 의 樂 觀 으 로 의 라 도 到 底 히 此 境 地 에 動 搖 시 킬 수 가 업 고 보 아 서 民 政 黨 에 서 提 出 할 不 信 任 案 은 實 業 同 志 會 의 向 背 如 何 에 不 拘 하 고 極 히 少 數 의 差 로 라 도 通 過 될 것 은 疑 心 할 餘 地 가 업 는 狀 勢 이 다 또 民 政 黨 에 서 는 來 七 日 本 部 에 院 內 外 의 初 總 務 會 를 開 하 고 此 問 題 에 對 하 야 諸 般 重 要 事 項 의 決 定 을 하 기 로 되 어 잇 는 바 問 題 의 根 本 은

一、不信任案提出의 時期로 提出의 時機에 對하야는 諸般의 空氣 等도 適當히 考慮 치 아 니 할 수 업 서 最初 부 터 確 然 히 日 字 를 定 할 수 는 업 스 나 原 則 으 로 는 議 場 에 서 最 高 緊 張 을 維 持 하 면 서 될 수 잇 는 대 로 徹 底 的 으 로 創 痍 을 興 하 겟 스 며 일 아 서 內 務 外 交 各 般 에 亘 하 야 豫 히 總 裁 以 下 七 八 名 의 代 表 者 들 을 壇 上 에 送 하 는 程 度 에 서 고 爲 先 三 日 間 假 最 限 度 로 할 豫 定 으 로 分 贊 는 을 試 하 야 遲 하 여 도 二 十 五 六 日 頃 에 는 不 信 任 案 을 提 出 하 게 될 模 樣 이 더 라

不 信 任 案 의 內 容 은

一、對 中 外 交 失 策

一、財 界 無 策

一、綱 紀 紊 亂

乃 至 選 擧 干 涉 人 事 行 政 利 權 關 係 의 四 項 目 을 要 點 으 로 하 기 로 되 엇 더 라

(東京電) 昨 年 來 에 反 對 의 官 憲 이 라 고 하 며 또 現 部 無 所 屬 約 十 九 名 中 에 는 三 民 政 黨 과 同 一 手 段 을 取 하 는 者 가 잇 는 것 은 同 時 大 多 數 는 政 府 와 이 에 反 對 黨 가 잇 습 으 로 此 等 總 計 를 比 較 하 면 在 野 黨 과 의 差 는 僅 하 八 、 九 名 이 나 其 中 政 黨 側 에 서 는 同 其 他 의 事 情 으 로 今 期 議 會 中 出 席 不 可 能 한 者 가 四 五 名 이 에 不 過 하 는 데 此 는 現 在 의 狀 態 로 는 今 後 民 政 黨 的 에 어 떠 한 分 解 作 用 이 일 어 날 지 도 몰 을 수 업 고 또 보 는 政 府 가 樂 觀 하 든 바 와 가 티 兩 派 의 形 勢 가 判 然 히 支 行 할 지 如 否 는 不 明 하 더 라

米穀需給關係

政府의 推算과 그 對策

(東京電) 昭和三年度의 米穀需給關係에 對하야 政府의 推算及對策은 左와 如하다더라

一、昭和三年度米穀需給關係는 記需給推算에 示한 바와 如함에 米輸入의 必要가 업고 晉이어 日、及各地米豐作으로 買上其他諸方法에 依하야 市價를 維持할 必要가 잇다고 認하다

供給部(單一千石)

前年度持越高	五、七七六
收穫豫想高	六〇、六四七
外米輸入豫想高	一、〇〇〇
朝鮮米移入豫想高	六、五〇〇
臺灣米移入豫想高	二、三〇〇
計	七六、二二三

需要部

日本消費豫想	六九、六九五
輸出豫想高	九〇〇
計	七〇、五九五
差引翌年繰越高	五、六二八

民政黨總務會

(東京電) 民政黨은 廿八日午後二時半에 本部에 總務會를 開하고 左의 諸項을 決定하엿더라

一、昭和三年一月廿日 午後一時上野精養軒에서 大會를 開催

一、同日午前十時 兩院議員과 評議員과의 聯合會를 開催

三、大會附議의 宣言決議起草委員을 總裁가 指名할 것

四、議會開會後의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疑者는 미리 院內總務가 決定할 事

其他選擧對策에 對하야 種種協議

無產各派協定

農民黨提議

(東京電) 勞動農民黨은 今年의 總選擧에 當하야 無產政黨이 依然히 相爭함은 不可하다 하야 地盤及候補者政策選擧費用等에 對하야 各黨間에 協定을 結하려고 一月早早各無產政黨의 代表者가 모이어 協議會를 開하기를 各黨에 提議하기로 三十日 常任委員會에서 決定하엿더라

樞密院案可決

(東京電) 樞密院本會議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開會하얏는데 倉富議長이 作會를 宣한 後 平山審査委員長으로부터

一、大學令中改正의 件

一、專門學校令中改正의 件

一、上智大學 官制改正 ○○을 가디 一、世德錦附地의 一部에 地上權設定에 關한 件

에 對한 ○○ 審査의 報告 하 고 此 에 對 하 야 質 問 이 잇 슨 後 ... 同 十 一 時 半 에 閉會 하 엿 더 라

年末最高記錄

日銀發行貸出

四年來奇現象

(東京電) 三十一日로 日銀發行高十七億八百萬圓을 突破하야 去年末最高記錄인 大正十二年末의 十七億三百萬圓을 超越하기를 五百萬圓에 達하야 年末로서의 新記錄을 作하게 되엿다 또 貸出도 九億四千萬圓에 達하야 此亦年末로서의 新記錄으로 金融恐慌이 끗나 年末로는 奇怪 의 異常한 數字를 示하얏다고

鐵道線絡의 繼續新建總費

六億五千餘萬圓

(東京電) 鐵道省昭和三年度以來의 鐵道線路建設新計劃에 依한 三年度以來十二年度에 至한 十個年繼續費總額은 六億五千八百八十萬一千圓으로 既定計劃의 三年度以來十年度에 至하는 八個年繼續費總額에 比하야 一億一千九百六十三萬三千圓의 增加요 此에 十一、十二兩年度의 新規計上額四千四百八十七萬九千圓을 加할 時는 一億六千四百五十一萬二千圓의 增加로 此等財源은 全部 公債에 依할 方針이라더라

宮崎知事罷免

(東京電) 古宇田宮崎縣知事의 行政處分에 對하야는 政府도 總選擧를 前하고 地方官의 士氣에 關係가 되므로 考慮하고 愼重히 協議한 結果 畢竟依願免本官이라는 體裁로 處分을 하기로 內定하고 新年政治初의 다음 閣議에서 그 後任과 이 에 伴한 二、三地方官의 更迭을 同時에 正式으로 決定하야 發表할 豫定이더라

木下關東長官

赴任途中談

浪人으로부터 一躍하야 關東長官에 赴任된 木下謙次郎氏는 二日朝에 赴任途中下關에 着하야 有志의 出迎을 받고 卽時 渡關하야 午前九時五分列車로 鄕里宇佐에 向하엿는데 長官은 語하기를

從來의 長官은 누구나 政治를 事務的으로 行하엿스나 余는 全혀 正反對로 事務를 政治的으로 볼 決心이므로 赴任後에 相當한 改革을 斷行할 것이며 朝鮮人의 臨近이 問題와 難題가 잇기 마 대 대 로 關東州와의 關係 와 大 計 를 二 日 夜 下 關 에 돌 아 와 「 宮 가 나 」 를 三 日 午 前 「 바 쎗 」 에 서 一 泊 하 고 三 日 午 前 「 바 이 칼 」 丸 으 로 赴 任 할 터 이 더 라

八面鋒

○ 新曆? 쉬 쉬 의 張 網 대 엿 다、 밧 든 것 은 歲 月 이 엿 다

○ 그 가 운 데 에 서 、 生 長 老 衰 를 늣 기 는 이 人 間 은 、 누 구 이 나 新 年 의 感 想 은 다 잇 스 럿 다

○ 그 리 고 、 特 殊 한 事 情 이 잇 는 사 람 은 、 또 特 殊 한 感 想 이 잇 슬 것 이 다

○ 그 러 면 해 마 다 달 마 다 、 날 마 다 、 해 마 다 、 特 殊 한 事 情 을 袁 訴 하 는 우 리 사 람 으 로 서 는 、 어 떠 한 感 想 을 어 잇 슬 가

○ 一 年 의 일 은 、 봄 에 잇 다 한 다 、 어 떠 한 感 想 으 로 、 어 떠 한 希 望 을 하 는 지 、 일 은 봄 부 터 일 즉 일 즉 準 備 함 이 ...

謹賀新年

瑞山邑內 瑞昌洋服店

石版印刷 活版印刷 和洋紙 文具 男服諸具 瑞山邑 瑞中央印刷所 主 金生植 振替京城九九九七番

瑞山郡守 李敏寧

瑞山市 裁縫各種 布木商 直輸入 裁縫組合

瑞山市 瑞山消費組合

萬世고무瑞山特約店 主 金大坤 永信商店

瑞山市 綿布 貿易商 朴元瑞

瑞山邑 主 朴友性 瑞山印刷所

大正고무瑞山特約店 主 李英熙

瑞山 禮興時計店

瑞山永利理髮館 主 徐光先

瑞山醫務署 李相勳

瑞山市 製絲業 高大福

瑞山고무商會 李鳳鎬

瑞山金子屋 喪中欠禮 柳基南

瑞山畜業傳習所 李金孫 [illegible]

瑞山 司法代書人 田泳爽

瑞山 醫生 曺秉哲

[illegible] 金海植

[illegible] 職員一同

[illegible] 釀造組合

[illegible] 東完

[illegible] 完福

朝鮮日報 [illegible] 李 朴 [illegible] 永

瑞山醫院 醫師 李龍基

정거장 裁縫機械會社瑞山分店 主任 李能世

瑞山市 裁縫業 李錫煥

瑞山邑 司法代書人 金鐘協

瑞山南門通 司法代書人 李揆唐

瑞山邑 司法代書人 金相洪

瑞山邑 司法代書人 朴熙生

瑞山邑 李弼成

瑞山基理敎會 李鍾權

瑞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瑞山海平社員 李昌雲

瑞山邑 旅館業 咸日成

瑞山 浮石面事務所 職員一同

瑞山郡浮石面芝山里 學務委員 金永福

瑞山郡浮石面月溪里 區長 朴相哲

瑞山郡浮石面芝山里 朴 [illegible] 烈

瑞山郡浮石面翠峴里 李寬敎

瑞山郡浮石面七田里 李憲敎

瑞山 浮石普通學校 職員一同

瑞山郡仁旨面屯堂里 李奎亨

瑞山浮石寺 俞 [illegible]

瑞山郡龍石面[illegible]浮里 金東[illegible]

瑞山[illegible]貞倉面余美里 柳相默

瑞山郡音岩面栗木里 尹鐘榮

瑞山郡大山面吾池里 金一濟

瑞山郡音岩面富長里 柳烈鎬

瑞山郡音岩面道堂里 金海雄

咸北鏡城郡朱乙驛前 新幹會朱乙支會長 朴周亮

咸鏡北道朱乙驛前 朱乙運輸組

咸北鏡城郡朱乙溫堡 朱乙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北鏡城郡朱乙溫六洞 潛心園 主 尹太赫 尹壽鳳

咸北鏡城郡朱乙溫驛前 綿布 雜貨商 吳鎭萬

咸北鏡城郡朱乙驛前 和洋 雜貨商 金太山

咸北鏡城郡朱乙驛前 吳黃龍 吳益龍

咸北鏡城郡朱乙驛前 鏡城醫院出張所 主任 李洙吉

咸北鏡城郡朱乙溫執三津 海陸物產 委托販賣商 南靑松

咸北鏡城郡朱乙溫執三津 海陸物產 委托販賣商 朴信濃

咸北鏡城郡朱乙溫執三津 漁具商 綿絲 金李孫

咸北鏡城郡朱乙溫執三津 金秉業

咸北鏡朱朱乙溫執三津 韓用基

咸北鏡城郡朱乙溫大津 雜貨商 崔長龍

咸北鏡城郡朱乙溫八郞 新幹會朱乙支會 總務幹事 尹熙誠

咸北鏡城朱乙驛前 金炳鉉

咸北鏡城朱乙驛前 金爛赫

咸北鏡城朱乙驛前 司法代書人 李敬龍

咸北鏡城朱乙溫大津 金利聖

咸北鏡城郡朱乙溫堡 柳性根

咸北鏡城郡朱乙溫堡 林吉松

咸北鏡城郡朱乙溫堡 柳晳周

高敞郡廳一同

愼鏞戴

高敞高等普通學校評議員 大山面事務所 面長 書記 同 同 同 同 技手 成 卓 蒋 金 柳 丁 李 炳 斗 永 均 鳳 燾 鎬 鉉 浚 碩 煥 榮 鎭 夏 秀 俊

星松面茂松里 大世敎本部 敎主 姜 [illegible]

古水面事務所 職員一同

高敞醫院 醫師 李世鍾

興德郵便所 所長 淺野喜八郞

海里面事務所 職員一同

上下面事務所 職員一同

星內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安面吾山里 靑年會長 李鉉昇

海里面松山里 有志 成夏鼎

興德醫院 醫師 尹昌容

興德面事務所 [illegible]

茂長郵便所 所長 [illegible]

心元面事務所 面長 朴 [illegible]

茂長面 [illegible]

雅山面事務所 [illegible]

星內 牟陽商會 李[illegible]均

高敞郵便所長 喪中欠禮 鈴木保治

財團法人高敞高等普通學校 專任理事 理事 理事 理事 金 洪 李 相大鍾休 鎬混轍烈

在滿同胞擁護와 各地團體

大連高麗人會代表 中國各紙에抗議
근거업는긔사에대하야

대련고려인회(大連高麗人會)에서는 금번만주에서 구축당하는 조선이주동포 누구키위하야전 대련재주조선인동포를옹호하여 세만피축동포옹호에 여러가지로 력을하야오던중 최근대련서 발간되는 중국、경양의만주보(滿洲報) 태동일보(泰東日報)등 각신문에서 조선내에잇는 중국 거류민이 조선인에게 살해되어 참살을당하엿다는등 부상자가 오백여명이라는등의 허무한긔사를실어 장차어느위험이 잇겟슴으로 모든중국인심을 격동식힘에대하야 동회에서는 회장김부성(金富成)씨와 간부 윤봉수(尹鳳秀)씨등을대표로선정하야 지난이십구일에 대련중국인 각신문사를 방문케하여 엄중히 항의하야금후의긔사취급에대한 여러가지의 주의를주엇다더라

◇永興 재만동포옹호동맹에대하야 영흥에서도 모씨가

陝川擁護同盟
의연금답지

지난삼십일에합천(陝川)청년회관에서 임시의장정순조(鄭淳祖)씨사회하에 재만동포옹호동맹을조직하고 결의사항과 임원선거가잇고 즉석에서 위문금을모집하니 아래와갓더라(합천)

◇決議事項
一、在內中國人의生命財産을保護할것
一、在內中國人에게交涉하야自國政府에抗議하도록할것
一、同情金을募集하야在滿同胞에게보낼일
一、規則作成은役員會에一任할것
一、臨時事務所는陝川靑年會館內로

◇任員
▲執行委員長朴東煥 委員、永元、禹春元 金錫圭 韓瑞利 金命壽 趙鎭基 李潤煥 趙漢基 朴子凞 朴載均 趙淳鎔 河石浹 裵三介 李正鎔
◇義捐金
朴東煥五十錢 [illegible] 朴汝淳壹圓 淳鎬五十錢 朴英俊壹圓 金祥 [illegible]三拾錢 李敏守二十錢 李鉉 [illegible]五十錢 金小 [illegible]五十錢 李敬出五十錢 [illegible] 大阪 [illegible]三十錢 [illegible]五十錢 [illegible] 李潤煥五十錢 李正 [illegible]二十錢 李相厚二十錢 姜孝 [illegible]二十錢 金 [illegible]二十錢 李鳳 甲拾錢 陳圭奐五十錢 李大見 二十錢 李潤奎五十錢

靈光에도 擁護同盟
삼십일일에창립

전남령광읍내(全南靈光邑內)잇는 각사회단톄대표와 유지제씨는 지난이십칠일 오후네시경에 읍내조정현상점(曹育鉉商店)에 모히여 령광재만동포옹호동맹(靈光在滿同胞擁護同盟)을창립코저발긔하고계속하야맹원모집과기타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제반준비가 다되엇슴으로 예뎡과가티 지난삼십일일 오후다섯시경에 읍내예수교당에서 창립대회(創立大會)를 정동윤(鄭東允)씨의사회로 열고、맹원명명이잇슨후 준비위원、리영수(李永洙)씨의 재만동포구축사건(在滿同胞驅逐事件)에대한 경과보고가잇고 림시집행부(臨時執行部)를선거하야 의장편진옥(片晉鈺)、서긔박장영(朴壯泳)、사찰정동윤(鄭東允)삼씨가피선되단한후 규약통과에들어 준비위원조룡(趙龍)씨의랑독으로원안대로 통과하고、위원을선거한후 조룡씨로부터의안(議案)의랑독 파 설명이잇슨후 만장일치로알에와가티 결의하고 동븜곱시경에폐회하엿다더라(영광)

◇決議案
[illegible] 民力을集中하야 統一된行動을取하야解決키로함

(理由書)
◇方法
一、京城에잇는在滿同胞擁護同盟에加入할것
二、모든것을在滿同胞擁護同盟과步調를一致할것
三、在朝鮮中國人에對하야는平和的合法的手段으로써하기로決議한 理由書)
四、日本當局의根本的原因을調査的으로研究하야民衆에게發表할것
五、本事件의眞相을調査發表할것
六、在滿同胞救濟에關하야는同情金을募集하야在滿同胞에게送金할것

◇委員 ▲執行委員長片晉鈺 ▲執行委員曺喜忠 曹斗鉉 [illegible] 李永洙 鄭東允 趙熙 [illegible] 曹喜兌 [illegible] 金寅成 金寅 [illegible] 曹喜成 [illegible] 朴壯泳

四氏釋放要求

전남법성포(全南法聖浦)에서재만동포구축에대한 반대데모로 지난이십칠일 법성시장을 리용하야 선전비라수만매를산포한 [illegible](永洙)김성렬(金成烈)강재중(姜在仲) 네사람은검속취조한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동포구재소에서는 전긔네사람을취조한후즉시노성경찰소로압송하엿다는데이로써재

全日賢氏釋放

영흥상인(永興商人)전일현씨는 재만동포구축에대하야 동포구축에 대하야 동정금을표하고자 지난이십칠일에일체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영흥경찰서에서는곳 전일현(全日賢)씨외몃사람을 구속하엿든바작일에무사히 석방되엇다는데일반상인측에서는그동무를위하야위안회를열엇다더라(영흥)

만동포구축반대동맹에서 모히는그날밤에 당디공회에 어그에대한대책을협의 백귀(白奎宜)씨등에 교로파견하야보청경찰서장에게 긴급의 외석바요 와재만동포에대한 칠 협의하기로지당 엇슴에 아씨는의이이신 놀람을 성으로풍파 하엿다더라(법교)

兩青年送局?

경북영일군 긔계(慶北迎日郡杞溪)의 광、최봉식(崔奉植)(二三)리종근(李鍾根)(二九)외수명인은 방금 문데중에잇는 중국관헌의 재만동포구축사건에대하야대책을강구타가검속되어 취됴를 밧고잇든사람들은 다석방되고 전긔두사람만은검 국외지송치시키기로하고 포항분서에 류치중이라더라(포항)

吉林에局限問題를 奉、黑兩省에까지延長
당면의문데는륙개월내의귀결을써결착
吉林講究會는東省講究會로改稱

재만동포구축문데(在滿同胞驅逐問題)가 넘어나자길림(吉林)에재류하는 조선동포는 길림간구축문데강구회(吉林韓僑驅逐問題講究會)를조직하고길림당국의교섭을 데일목표로 하야이래여러번이나 교섭을 하고 또한내외일반동포의만흔동정과 후원을바든결과 길림성안에 재주하는조선인은 지금부터 륙개월이내에 국적법(國籍法)에 의한귀화수속(歸化手續)을리행할것으로써 겨우당면의 구축만은 면하엿스나 아즉봉텬(奉天)흑룡강(黑龍江)양성의문데는 하등의결착이업는현상임으로 전긔 길림한교구축문데강구회에서는압흐로한거름더나아가 봉텬성과 흑룡강성문데에까지 진출하야 그회의 일홈을동성한교문데강구회(東省韓僑問題講究會)라고 곳치고 사업의범위를일층확대하야 문데를우의뎌문데해결하기에 로력하는동시에 동시에내디일반동포에게 재만동포의 진정한상항을 철실하게 알리도록 하기위하야만일의 오해(誤解)가 업도록힘쓰고저하야 조선에잇는 중국인일반에게 위문을주며 그진상여하를 료사키위하야 동회에서는 지난달이십팔일오전 열시오십분발렬차로 박우텬(朴宇天)군을특파원(特派員)으로서조선을방문케하엿다더라

永興農民懇親會
륙일정오에

하야각단톄와련합회를개회키로함

순녕농민동맹(順寧農民同盟)에서는 신년벽두를긔하야 근녕(順寧)농민운동사상긔념을 개최한다는바 시일、장소、회비는 다음과 갓다더라
▲日時 一月六日正午 ▲場所 永興勞働同盟會館 ▲會費 十錢

各地同情金

생명은 건졋다는데 음독원인은 일절말하지아니함으로자세히알수는업스나 아마그부슨 말할수업는업는 긔한사정이잇는듯하다하며 무모에게는오래동안은혜를닙엇든 것과그외말못할사정이잇서 원한길을떠나겟다고유서를남겨두엇더라(삼척)

▲金四十六圓八十一錢 新上基 승녕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에 동어온동정금(同情金)은일일에와 갓다더라

倭館金組書記 巨金橫領逃走
출납사무맛든긔회로 삼천삼백여원횡령도주

경북칠곡군왜관금융조합(倭館金融組合)서긔김창룡(金昌龍)은동조합현금을 출납을 보던 바 동조합현금 삼천삼백구십원 사천 조합현금 삼천삼백구십원 삼천을 가지고 어디로인지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이것을발견한동조합에서는 왜관 경찰에 고발하야 범인을수색하는중이라더라(왜관)

督勵勸育年會▲金十圓寶濟津 恩愛學校▲金十三圓八十八錢 軍威少年同盟執行部▲金五圓 非邑金斗鉉▲男女衣服二十五 佐順、耶蘇敎会▲金一圓式 小學驪學校昌道閱內夏

僑民大會열고 積極策講究
그외내외각디에는성명서
上海同胞僑民團에서

재만동포구축(在滿同胞驅逐)에대한구제책(救濟策)을강구하기위하야 지난 십이월십오일에상해(上海)모처에서상해동포각단데대표련석회(各團體代表聯席會)를 개최한바주석리○수(李○洙)씨사회하에다음과가튼결의를하엿다더라

◇決議
一、北京政府奉天省當局吉林省當局에在上海各團體의名義로抗議文을發送하기로하고同作成委員을陳○三金○李○張氏를選定함
二、上海居留同胞에게在滿同胞의慘狀을周知케하기爲하야宣布文을配布하기로하고同作成委員은李○張氏를選定함
三、上海僑民團에서僑民大會를開催하고民衆的으로[illegible]救濟策을講究

상해(上海)모처에서개최하고다음과가튼결의를하엿다더라
◇決議
一、上海支部는承認하기로함
二、在滿同胞驅逐에對한抗議文을奉天省當局吉林省當局北京政府에發送하기로함
三、支部에는指令各所屬團體에公函하야該地方團體聯合又는單獨으로抗議文을發送하게하기로함

上海支部決議

지난십이월십일에중국본부한인청총 중앙 집행위원회 축소위원회를 상해모처에서 개최하엿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동십일일에는 전중국본부 한인청년동맹상해지부 [illegible]

高普生飮毒
유서남기고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普校)삼년생재학중에잇는변영근(邊永根)(二〇)은병으로 인하야이가을부터 삼척읍송정리(三陟邑松亭里)자가에서료양중지난이십칠일오전칠시경에 돌연히나가서 집에서 얼마안되는 지나는시경에들어 약이십리나되는정라항(汀羅港)에가서 최면제포수(抱水)조랄(크로랄)을먹엇다는데 약을먹은것을근처사람이발견하고 곳파출소에 고한바파출소에서는 엇던화로 삼척경찰서로 급보하야 자동차로 급히삼척읍으로 와서 의사에게치료를 밧게하엿슴으로

新元劈頭馬山에 日巡查拔劍暴行
칼을빼여들고극장에들어가함부로야료
一般은極度로憤慨

지난일일 오후일곱시경 마산부수정 島山府濱町에잇는 삼정극장(壽座)에서는새해첫날의첫재로어연활동사진순업대(活動寫眞巡業隊)가들어와사진을 개시하얏는바 만원을일우어 관객들이 사하게되어 몹시들어온 사람은모다 사진에 정신을 빼앗기고 잇는동안 마산경찰서에어던일인 순사가 술이며취하야 몹시국장안에뛰어들어와 그극장에서 표를팔고잇든도모(都某)라는사람에게 아모리 유도연인 듯한 함부로칼을빼여 들고 장내에 들어가 함부로 갓다 쳐 허리에 차엇든 칼을 빼여들고 모론필 을 보는 노는 리 를 노르고 찌리 는 사에들고 유명 이 지팡을 을 치고 큰 을 이 ...

[illegible]

다시 린접한극장주인의 집에 천입하여 당치도안흔 욕설을함부로하며 영창과 기타약간의 긔구를 발길로차며 주먹을휘둘러산산히 부스는등 폭행을하야영사중의 사진까지도 일시중지하얏스며 필경권고순사는 동료순사에게끌리어 구마산 파출소에까지갓스나 파출소에잇는순사들에게까지 욕설을하며 닥치는대로 부스겟다는등의 언사로 순사들을희롱치고 뒤리여 역시파출소에서도 상당한 [illegible]

一時所聞 女性의最近消息 (三)

一葉片舟로故國을脫出 現在는米洲서學窓生活
령오의몸으로몇번이나세부란스병원서보석치료중 다시미주로

者金瑪利亞

어일시세상을놀래이게하든녀성 『김마리아(金瑪利亞)』는 그이는지금 어듸서무엇을하고 잇는가?

脫出은計劃을

일상가지고잇서 서대문형무소 병감(西大門刑務所病監)에수용하다가 간만의 사파적이허가되어 오랜 겨우보석되어 세계(沙婆世界)의 바람을쏘이게된 김마리아는 시내세부란스병원에서 거의반신불수가된 몸동아리를 차료한는편에 향

로갈원너한 [illegible] 각하엿다 [illegible] 男子로 [illegible]

상고회인잇스면조선을 탈출(脫出)하야자유의바람이 부는나라

인천에서상해로 그후에신병이 차차낫되어 커

유이건강이 회복된 김마리아는 당시○○사건으로 역시보석중

그후의 김마리아는 상해(上海)에서 중국의 려행권(旅行券)을 어더가지고 미국(米國)으로 건너간후 『뉴-욕』에잇는큐컬렘비아대학(大學)의 교육과(敎育科)에 입학하야 공부를 계속하는다는 소식이잇다

上海에서다서
미국으로가고화

해(上海)로 떠나가게되엿다

해(黃海)를 횡단(橫斷)하야 상해로 마한 목선(木船)을타고 사나운 파도가 닉닉 부딋칠 용소승지는황해를 하야 인천(仁川)으로가서 후 거긔서다시 사람의눈을피하야 조그마한목선을타고 하룻밤을 표류하다가 무사히 상해에 도착하엿다하며

(保釋中)에잇든 오도(吳某)는 사람의 도움을밧게되어 교묘하게남자로 변장(變裝)을한후 어느날 이슥한밤=만리가 고요하야 인천가만히병원을 탈출

大學教育科를 졸업코계속연구

그런데김마리아는 작년봄에 컬넴비아』대학교육과(敎育科)를 졸업하고 현금에는 동교연구과(研究科)에서 여전히학업을계속하고잇다는데 언제나다시조선에 도라오겟느냐고 뭇는어떤사람에게대하야 『그는할세요언제나도라가게될지 아즉말 할니다마는 도라간다하드래도 그사람들이 용서해줄는지요』 ? 라고 근으로한가운데 보석중에탈주한죄를 조선의사법당국(司法)에서 용서치안흘것을 겁하는 뜻을 빗이엿다하니 어느날이나 또다시 그가조선의 땅을 밟게될는지! 그의지구들은하로밧비 그가돌아와 한가히안 힘될거운날이 어서어서닥쳐오기를 지금부터고대하는 김마리아양)

메리카 사람들도 다경탄함을 마지안엇다한다

獨身生活하든 七十老婆被殺
전신을함부로구타하고 처마끋으로목을매추여
河東에疑問殺人事件

하동군악양면평사리(河東郡岳陽面平沙里)에서는칠십고로파가 피살되어 입에문데가되어 잇다는데이제그내용을듯건대동리에 거주하는강평남(姜平南)(七〇)로파는어릴때 누터 가이업는 생과부로 남편업시 혼자 외에는 아무도업시 흠몸으로 약노나하위칠십이 넘엇스나 생활간의토디를 두고복숭을 지지해오든바 지난이십칠일 경에죽엇다는소문이 세상에퍼지자 하동경찰서원과 공의는현장에 가서시톄를검사 하결과피살 된것이 관명되엿는데 처마끝으로 목을잘나죽인 형적과 여러곳이 완하야잇다는바 드르마에 의하면 또디를팔아고 이백여원을 장치하야두엇든것도 업서진듯 하다하니 범인은 아직데포치 못한모양이라는데혐의자로 리승택(李承澤)(三五)을방금 하동경찰서 에서취됴중이라는 데단신으로잇다가피살 되엇슴으로 로파의신세가 가련하다더라 운모양이라더라(하동)

金組、殖産支店의 兩給仕引致取調
◇沃溝의三千圓紛失事件

지난삼십일오후 세시반경 군산경찰서에서는 옥구금융조합(沃溝金融組合)에잇는 황량회(黃良會)(一八)외부녀에잇는식산은행지점(殖産銀行支店) 급사를불러인치하엿다는데 이제 그내용을듯건대 지난 삼십일에 동조합에서는 현금으로 삼천원을 부내에 잇는 식산은행지점에 당좌로예금하려고 동급사에게 보내엇든바 그금사는그협금과 소절수를

소절수도잇는것을 발견하게되어

雄基大火
회세맹렬로 일시대소동

지난삼십일오전한시반에웅긔시내(雄基市內)의한복판、 사백삼십번디 송대헌(宋大憲)의집에서 불이닐어낫는데 며마츰 암시부는 북풍으로인하야 회세가 극히맹렬한바이니라 불똥이 웅긔시내

다던간시내종독부의원내과(總督府醫院內科)에근무하든 의학사 백린제(白麟濟)씨는 그동안경대(京大)에 학위론문

白氏에醫學博士
론문이경대교수회에통과

(學位論文)을데출하엿든바금번에동론문이경대교수회를통과하야 새로히의학박사(醫學博士)가되엇다는던보가왓다더라

海州新幹支會에 大地社警告
관서동우회문데로

지난십이월 삼십일일 신간회해주지회(新幹海州支會)창립대회의결의사항중 『運動線上의統一을爲하야地方熱鼓吹團體를撲滅하되爲先關西同友會의正體를調査키로함』이라는조항에 대하야 경성룡산에잇는아래사가튼의미(大地社)에서는

友會가地方熱鼓吹團體가안인것은充分히證明할수잇는것인바이러함에도不拘하고地方熱鼓吹團體와同一視함은一種의中傷的態度에不過한것이다

스나이것만을가지고도關西同友會를、××한』이라는言하엿다 醫者를××한다는 것은勞働階級의××을阻害하는職業的運動者와強權主下에서全勞働階級의××을踏『우리는自由聯合主義의 旗幟關西同友會는그綱領에잇서서 로경고문(警告文)을발하엿다더라

▲取消 三十日附本報第三面의記事中『靑年鬪博士一網打盡』이라는題下의記事는事實相違된바잇기玆에取消함

자백치안흐므로 보다못하야 동조합에서는그것을뻔히알면서도 바 이천원이그대로잇다가 라서칫진형무소로보내엇는데 이 외의 긔원의 홍괴로만 버린이백여신원의형 남동이잇슬라 은분실하여 노리하며종래간에 다드러가서 업중한취뇨를 밧되 그는한업 에서데포되어 웅긔경찰에 와서 백원을 횡령도주하다가 신안산 (沈久全)이가부하의입금원천수 월분에 중국인부의수령 삼구전 구의돈인지 알수업스나 지난칠 지그러한 분실제가업슴 으로두 득한현금천원에대하야 는아직 사국으로송치되엇다는 바 [illegible]

前科七犯窃盜
다시경찰의손에

경남창원군 내서면중리(慶南昌原郡內西面中里)서천수(徐千壽)(二[illegible])는 전과칠범의 절도범인데 창원군 송리면광려리(廣川里)강진당(姜辰堂)방에 들어가서 비돌을쥐고 가지고간것을 집안사람이발견하고 고막엇섯든바 그는즉시단도를내어 협박한후 동리사람 몃이달려 이급보를밧은 경찰은 사면으로 비상선을 느리고 수색한결과지난이십칠일 데포되어 방금엄중취됴를 밧고잇는중이라더라(마산)

어느때부터 이같은절도를 하여왔든지 어버이잇는데 아들이 보임으로그부근 어떤사람이 의심하게되어 마을소방에 의뢰하야 여러분 한바 그는 연하여 만헌 、차고 속에 시계 등 여러가지 훔친 물건이 노엿는데、 파출소에 알라 중이라더라(경성)

千圓拾得
소비하다가 경찰의손에

웅긔송평동(雄基松坪洞)에사는 신학룡(申學龍)(三九)은지난여름 에송평해안통에잇는 로동자최 매)을엇어가지고 모 객주집에 그대로두엇든바 구 고용긔를떠나 부근 즉시 웅긔경찰서원이 몰래 면에서 방황하다가 긔동수상 로경찰에 잡히어 고 되는 하야(行에 의하야 매) 등디로들아단니며 신여원을소비하다가 쇠를어더가지고 교묘 하야 (행 통

謹賀新年

安城郡廳

安城邑東里 道評議員 朴弼秉

安城郡一竹面金山里 尹大林

安城郡瑞雲面 面長 李思震 會計 李禎宰 書記 洪淳夏 書記 趙成鎬 書記 李思萬

安城市場 綢緞布木雜貨商 趙鍾學商店 電話十八番

安城郡三竹面 面長 閔泳寬 會計 吳萬泳 書記 金思𤊽 書記 黃升淵 書記 李商禎 書記 鄭𤊽根 書記 朴長遠

安城邑內 三光自働車部 李鍾勳

安城郡竹山市場 新興理髮館 主 高秉銓

京南線注川驛前 興南商會 尹興林

[illegible]市場 乾材藥局 [illegible] 鎭載

安城郡竹山市場 興業組合長 梁在元

安城邑內 時計貴金屬商 金光堂時計舖 主 金潤富

安城邑內 李漢九

安城郡竹山市場 朝鮮料理 永春館 主 劉益鍾

安城邑內 八達醫院 院長 朴胤根

安城郡大德面 面長 柳貞秀 書記 洪寬範 書記 金九思鉉

安城郡金光面 面長 俞鎭雄 會計 李起星 書記 俞鎭遠 書記 文在元

安城郡陽城面美山里 海星製絲場 主 閔泳鍾

安城郡竹山市場 和洋雜貨 德興商店 尹德求

安城郡瑞雲面 警察官駐在所

安城市場 ゴム靴 原靈商 泰昌商店 貴允吾

安城郡邑內面道基里 鄭殷薰

安城郡竹山市場 綢緞布木 富潤商店 鄭漢奎

安城郡竹山市場 學校評議員 梁漢錫

安城市場 金順基百貨店 電話六七番

安城郵便所

安城邑內東里 朴龍秉

安城邑內 穀物雜貨及委托業 東一商會 俞鎭榮 電話三[illegible]

安城商事株式會社 社長 金濟弘

安城邑內 湖西銀行安城支店 支店長 李正鎬

安城郡二竹面長浦里 面協議員 李鍾七

安城邑東里 安城衡平社

安城邑內東里 朴周秉

安城郡竹山市場 孫洙根

安城邑內場基里 宋圭衡

京南線安城驛前 伊藤運送店

安城郡陽城面芳新里 李在憲

安城郡孔道面龍頭里 學務委員 金鍾祿

安城市場 海陸物產委托販賣 宋根榮

安城郡金光面西興里 面協議員 金秉烈

安城郡孔道面佛堂里 朴錫和

安城郡薇陽面井洞里 趙奎夏

安城邑內東里 司法代書人 崔熙成

安城郡二竹面 面長 李泰榮

安城郡三竹面龍田里 尹鍾宣

安城郡陽城面芳新里 [illegible] 元[illegible]

安城郡孔道面新頭里 申敬[illegible]

安城郡孔道面新頭里 吳錫[illegible]

安城郡孔道面中洑里 李元和

安城郡孔道面中洑里 黃萬在

安城郡孔道面佛堂里 朴姓完

天安郡成歡面[illegible]里 車成奎

安城郡安佐面公立普通學校 校長 坂東原一

安城郡安佐面事務所 職員一同

安城郡長山面大里 張鎭邦

安城郡長山[illegible] 職[illegible]

紀元後七十二週甲인 檀君의해—戊辰年 (三)

民俗學上으로 본 檀君王儉

崔南善

◇靈威信仰의 雰圍氣

民俗本位로考察해야할 檀君이어늘 그唯一한古史籍이終始一貫으로, 民俗的色彩의濃厚를가졋슴은 미상불多幸中多幸이올시다 본내는필시淡泊한形容을가진古代神話에, 缺落又變約된것이겟지마는 다른部分에어떠하든것은 아캐는둘것아니오 그남어잇는약간事實의全部가前時代的民俗본으로 [illegible]

文化的共通相 民俗的類同分子가잇젓다하면 이것하고文化的接觸地방고의 比較研究에서그事實性判斷上緊切한 效驗을發見할수잇슴이 [illegible]될것입니다 그런데檀君古傳에는 歷史的事實의反映도 多分으로잇지마는 그것이前時代的 觀念에因한神話的의것인만큼 그結構는필경神話的이오 神話이매그意匠과手段에는저절로 系統的類同도잇서서 比較研究의可能點이만

琉, 蝦夷等의 天孫降臨建邦說話的建國古傳과下代로내려와도蒙古及滿洲祖先의發祥說話가다이古觀念 共通意匠을應用한것이오(古事記, 中山世鑑, アイヌ傳集, 元朝秘史, 東華錄等 參照) 朝鮮古代의다른地說話에 夫餘로부터加洛에까지 어느國祖고天降者아닌것이 업는[illegible]이 觀念에因하는說話的共通表現인것을입니다 이제檀君記에 [illegible] 國의祖子桓雄이 「弘益人間」의經綸을가지고 太白山頂으로나

라하는事物과 風伯이나 雨師니하는徒係이 어느것이巫覡的이아닌것입니까 또그變化의[illegible]인 穀, 命, 病, 刑, 善惡等이 어느것하나그時代에잇는巫覡의行事아닌것이잇슴니까 그런데이巫覡的이란것이 古代에잇는生活 文化 乃至社會組織의全體임을생각하면 이檀君記의[illegible]容이 어떠케原始時代의文化相을傳하는忠實한文字임을것입니다 生活의全部를 [illegible] 淵해가지고 [illegible]的活躍의韓人으로써[illegible]해가는그에그비에게잇서서는 巫覡이진실로人及社會一切의[illegible]을것입니다 「마직」은當時에잇는[illegible] [illegible]이며 「리부」는그[illegible]律이엇읍니다 이狀態는어느[illegible]이나民族의古代에든지 다마찬가지이며 사방이라도原始的民族의生活相은어대로든지다마찬가지입니다 朝鮮의古代文化도이러할것입니다 [illegible]에[illegible]上落後者인 東北及[illegible]亞細亞의모든民族에아죽[illegible]生活及文化를지니고잇는[illegible]한히잇기도합니다 그런즉檀君[illegible]外事實이 朝鮮民族의原始生活歷史的表現法으로말하자면 初의故事를 아모修飾과改化 지 [illegible]히傳하는것임을[illegible]一層더[illegible]할것입니다 (고런데, 라칠, 차풀리카等世及滿蒙古西比利亞에關한모든著及其他民俗的모든報告參照)

◇白山과巫君의相隨

[illegible]檀君記中에나오는名句를結건대 첫째天帝子桓雄의降臨는太白山이라하고 檀君의立地及神隱地가 白岳이라하야君記의地理的首尾를짓는者가이다白으로써일관하는곳인데이이란것은실상「밝안」의寫語인[illegible]의對字요 이「밝안」은古語神과및神的인모든것에對한稱로 白山이란것은神山, 神的象인山의義입니다 朝鮮의古仰은山으로써天을表象하야온宗教的行事를天인山에向하야行함으로어느地方에든지이러山이잇서 반드시白의名號를[illegible]으로 白山이란것이城[illegible]處에잇지마는 그中에도信仰地位가 가장높고文獻上徵遡가장오랜者는 白頭山인데白山은朝鮮前後代의稱謂이지마본내는太白山이라하든것이秦漢間의祭祀인山海經에는咸山이라고적힌것입니다 이咸은실로「밝안」의 一異譯으로山곳巫祝對象인山의義입이니 山海經의달은神山記載에보이는「羣巫所從上下」라는[illegible]實은 필시이山에도適用되는[illegible]일것이 그[illegible]義에서생각되바이며 다시蒙古에서그國祖降의靈山을不兒罕山이라하누不兒罕은그國語로神을일컷[illegible]이요 不兒罕과不咸은그語[illegible]한가지함을여긔合하야생각면 桓雄과檀君에附隨되는[illegible]不咸 不兒罕의異形同語인으로써稱謂되는理由를환하게것입니다 얼는말하면白山이[illegible]巫覡의山—神인山—[illegible]

謹賀新年

海南右水營 李香彦

海南郡右水營 青木佐市

海南郡玉泉面永信里 梁會定

海南郡右水營 [illegible]局 [illegible]

海南郡北平面[illegible]里 朴漢玉

海南郡 花源面事務所

海南邑內金城自動車部 主任 崔重彩

莞島郡莞島面郡內里 池洞來

莞島邑內 金官善

莞島邑古今島 大平堂 禹文[illegible]

莞島金融組合

莞島邑內 金容安

莞島郡 德永直道

莞島警察署 署長 川上鐵五郎

莞島郡郡外面 職員一同

莞島郡廳 金[illegible]

莞[illegible]

木浦府務安通二 [illegible]主 金明鎭

木浦府常盤町 廣信洋靴店

木浦府明治町 高等理髮館 元千吾 姜仲涍

木浦府竹洞二三 南鮮旅館

木浦府南橋洞 崔成吉

木浦府寶町三丁目三 精米業 金盛商會 主任 金鍾沂

木浦府湖南町六 富蘭翠病院

木浦府北橋洞一九三 鄭麟采

木浦府榮町 海陸運送並回漕業 南一運輸株式會社

木浦府榮町一丁目六 海鮮運送株式會社

木浦府竹洞 乾材藥局 柳官五

[illegible]郡松旨面 [illegible]

務安郡二老面[illegible]山里 代理人 金永述

務安郡一老面竹山里 吳炳斗

務安郡三鄕面[illegible]里 全潤一

務安郡三鄕面[illegible]里 林容圭

務安郡安佐面山斗里 朴信奎

務安郡安佐面邑洞里 金良淑

務安郡安佐面邑洞里 金相賢

務安郡安佐面邑洞里 金鎭述

務安郡荏子面 鄭根澤

務安郡海際面 興業會社出張所 金秋淵

務安郡荏子面鎭里 朴宗憲

務安郡荏子面事務所 職員一同

務安郡荏子面鎭里 商店主 鄭[illegible]化

務安郡[illegible] 公立普通學校 [illegible]俊

[illegible]普通學校 同

[illegible]組合 [illegible]

[illegible]內 [illegible]

[illegible] 植

普通學校 [illegible]晟

永琪石鐘珉五
泰培斗完淑守

木浦府木浦[illegible] 物商主 文善弘

木浦府常盤町 海壤商會 李[illegible]來

木浦府大成洞 金德仲

木浦府北橋洞 愼宗三

木浦府南橋洞三七 崔上圭

木浦府櫻町 朝鮮料理 日出亭

木浦府錦町二丁目四 金玉鉉

木浦公立普通學校

木浦公立女子普通學校

木浦府南橋洞 中華料理 同春樓 主任 [illegible]

木浦府大和町 永義和

木浦府大和町 新盛號

木浦府南橋洞一二三 朴萬年硝子商店

木浦警察署 中島健三

木浦府明治町 綢緞布木商 李春培

木浦府寶町三丁目三 布木商 朴正允

木浦府錦町二丁目三 穀物貿易商 湖南商會 主任 [illegible]

康津郡兵營 公立普通學校

木浦府南橋洞佛教堂 張正仁

木浦本町 永盛福 張[illegible]日

木浦府竹町一四 安登商店 [illegible]

木浦驛町 安昌旅館 安昌[illegible]

木浦府 司法代書人 朴龍載

木浦府幸町一丁目六 布木商 崔汝章

木浦府南橋洞一四九 藥商 金炫祚

木浦府竹洞二 吉守命

海南郡松旨面 朴琫旭

海南郡縣山面草湖里 尹[illegible]雄

海南郡北面 職員一同

海南郡松旨金融組合 理事 劉完鍾

海南郡花山面 尹在敦

海南郡海南面白也里 閔丙昇

海南面 里 郡守 安秉春

海南郡海南面海里 閔泳旭

海南郡黃山面牛項里 金堯甲

海南郡黃山面蓮湖里 李鍾睦

海南郡縣山面平湖里 尹哲夏

海南郡山二面富洞里 金鎭官

海南郡山二面富洞里 朴千采

海南郡山二面 面長 鄭京采

海南郡花源面靑龍里 洪永勳

海南郡花源面 五十嵐音松

海南大興寺

海南郡 道評議員 朴鍾惠

務安郡智島金融組合 組合長 羅利成 理事 吳仁錫 書記 具玄勳 同 朴栽實

務安郡荏子面鎭里 金鍾哲

務安郡智島面 職員一同

務安郡慈恩面 職員一同

務安郡慈恩面古[illegible]里 金石洪

務安郡慈恩面松山里 金文一

務安郡慈恩面古[illegible]里 李相喆

務安郡安佐面[illegible]里 金泰佑

務安郡安佐面[illegible]里 金炳甲

務安郡[illegible]面[illegible]山里 魯文石

務安郡[illegible]面大[illegible]里 魯炳善

務安郡三鄕面[illegible]里 姜成會

務安郡三鄕面[illegible]里 車大均

務安郡一老面[illegible]山里 李京鎬

務安郡安佐面山斗里 鄭宗琪

務安郡安佐面存浦里 徐台三

務安郡安佐面伏[illegible]里 金順吉

務安郡安佐面南江里 金長燮

木浦驛前莞山旅館 海陸物產委託賣買 海東商會 主任 崔聖台

木浦靑湖醫師會

木浦府竹洞 朝鮮高等料理 東洋館

海南郡北平面漁業組合 組合長 申昌儀 理事 文聖周 書記 吳宗五 同 姜[illegible]玉 同 姜起東

海南興業株式會社 社長 李桓鎔 專務取締役 朴昌洙 支配人 徐相淑

咸平郡廳 職員一同

咸平郡農會 職員一同

朝鮮映畫界의 現在와將來 (二)

沈熏

×

이와가티함으로 긔막한現狀에서 作品을製作하는사람들의苦心은 局外者로는想像도할수업는것이다 詩人은一管筆만 미쳐잇스면 엇더한玉篇佳什이다도 써볼수가잇고 小說家는 저물로 부러다니는머리와 原稿紙만가지면어느구석에서든지創作을할수잇다

그러나가장複雜한綜合藝術인 戲曲의演出、나 映畫의撮影은 누구든지생각하는것가티 簡單이 솜씨좋게되는것이아니다 더구나映畫는 그本質上科學과藝術의混血兒이니 同時에工業品이요商品으로 되어나오는것이다 훌륭한原作이잇고 저아모리能力잇는監督이 總力量을다기우린다하드래도 가장새로웁고精緻한科學의힘을 빌지안코는製作할生意도 못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illegible] 的施設이업다 또는 어[illegible] 각하면 映畫는光線의[illegible] 어둠인二十[illegible] [illegible]人치못한것이다 [illegible] 다모든道具가 完備된다하더라도 [illegible] 도 映畫는또[illegible](動作)의[illegible] 術이니 代代[illegible]이모누라누든 骨格 민패가더납작코人배이들 가지고는 傳統的으로律動的으로肉體의訓鍊을밧지못한東洋人 그중에도 조선百姓으로는그表情과動作을映畫的으로表現할可能이업다해도過言이아닐것이다 이것은脫、의말이나 實際에들어서 가장重大한問題의하나요 쳐어도 몃몃世紀를걸쳐노코도 解決키어려운宿題인것이다

×

『카메라』들우어오고俳優들을 주서도아가지고 千辛萬苦를거듭해서한作品을만들어놋는다고 [illegible] 이에옷나느냐하면 興行[illegible] 資本主、서는가장致命的[illegible] 가로막아선것이다이[illegible] 最高記錄이 한作品에[illegible] 을[illegible]한것이니 製[illegible] 全收入의四割을[illegible] 映하한다

그래서 하로밤에滿員된收入이平均六百圓치고六日間(두번『마티네』를하로밤으로처서)興行에全收入이三千六百圓 製作所側에서 차저가는돈은겨우一千四百四十圓밧게아니된다 그中에서廣告費 宣傳費무엇무엇을除하고나면은 結局얼마나남느냐? 六千円을 드려가지고 正收入은 一金千圓也라니 남어지五千圓은 어데가차즐것인가? 地方巡業을할수밧게업는데 常設館이잇는곳은 겨우四五處에 모든浮費를삭치고나면 들어오는돈은 그야말노鳥足之血이다 큰돈은몽땅이꽤간데온데가업고 작은돈은부시깃처럼 주머니속에서 부서저버린다 그러타從事한사람들의 報酬고는 거우撮影하는동안만[illegible] 갑도되지못하는것도事實이다

×

나는 이우에서算盤上으로본 興行의現狀을 말슴햇거니와또한가지 돈의힘 資本의威力으로도 左右할수업는 가장큰障碍物이 映畫發展의前程을가로막고잇는것이잇다 그것은(內閣)檢閱制度나 小學生이(中學)文藝作品에比해서 絶大多數의民衆에게 가장直感的으로또는痴情的作用을하는魅力을 가진것이映畫다는것을 그들은먼저알고안저서 ××와가튼눈초리로한커트한커트를 뚤어지도록檢閱하는것이다 數個의時日을두고 數十名의피땀흘린努力의結晶이 이××을한번가저나오면 그中에會心의場面 보혀주고십흔 重要한커트는私情업시 싹독싹독잘러서 寫眞을만들어번사람도 알어볼수업는것이토막토막이되어나온다

戲曲『아버지와딸』(三)

金永八

딸 (의미를늠나치여다본다)

아버지 삼년만에 조선에 돌아와보니까 얘는 점점××간다 모조리 못살것다고 하는사람들은 흰옷입는 사람들뿐이드라

딸 네 참그래요 들어가는사람은거지와 노는사람 뿐이예요

아버지 그것이 경제뎍 파멸이라는것이다 그러나는 여러사람들이 말하구 간다간다하든 북쪽도 만히엿지 남쪽으로두 갈수업다 안으로 들어올수도 업구 나갈수도업는것이 조선사람들이다

딸 그래 아버지는 엇더케하실작뎡이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물론하구 힘이합하야만될줄안다

딸 그리하야 엇더케하서요

아버지 우리가×××××××××엇더한××이라두하여야할것이다 ×××도 내여야하구×××××야될것이다

딸 누구와말이예요

아버지 물론 우리들 이와가티만든××들에게지

딸 커는 엇더케하면조하요 아버지

아버지 무엇을엇더케한단말이냐 네가앗까말한바와가티 너는지금 어머니의××와 여러사람들의 ×과가티 살고잇지를안니?

딸 그러나 저는 그이를×이나××로알지는안허요

아버지 무엇이야? 그러면 너는예수쟁이와가티한단말이냐?

딸 안이요 그럿치두안허요 그러나 그이만은

아버지 오냐안다 물론 누구나 개인과 개인사이에는 조그마한 간격도업고 또한××도 뎌도될것은업다

딸 그러면왜그리서요

(中略)

딸 네 그래요 참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너의 놀개인이지만 돈으로사람을 산다누것무러도 ×××들을 모욕하는것이다 사람을 돈으로매매한다는 그와가든놈들의 십리는반드시 가진야욕과 야망이잇슬것이다

딸 아버지나는 엇더케 하면조하요

아버지 무엇을?

딸 나는 돈에팔니여왓서요 그리하야빗나는태양두마음대로 볼수가업는몸이예요커를구하야주서요아버지 지금 아버지의말슴을듯고는더이곳에잇슬수가업서요

아버지 그러니까너두피ㅅ줄이 생긴다는말이로구나

딸 네죽어도 굶어죽어도 얼어서죽어도

아버지 그러타더도××사람이다 ××사람으로 ××들위하고××의××을 위 하는것은 맛당한일이다 또한반드시그래야만된다(以下六行略)

딸 그러면 아버지 우리들은압흐로엇더한곳으로가여야합니까

아버지 응우리의갈곳은분명한 장소가업다 또한아죽과커녀이 업슬것이다

딸 그곳은어데인데요

아버지 우리들이가는길은―우리들이갈길은협순하구동과서남과북이업는까닭이다

딸 그러면우리만가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야쉬두내가말하엿지왜? 다누구나 그러하다구

딸 참정말그래요? 그래서우리어머니와××사람들이×××파또는우리들×하라는×××괴×와×××다말슴이지요?

사선[illegible] (一一八)

柳[illegible]作 夕影畫

十三의十一

명재는 일어나 긔택이와서로인사를하엿다 긔택의얼굴에는매우 민망한듯한빗이완연히 떠올나잇섯다 그눈에는눈물이 글성글성하여잇섯다

명재는 인사를맛친후에다시 자리에안저 이야기를시작하엿다 긔택이는그뎡헤안저서잠잣고 듯고만잇섯다

『그래다시 충청도로넘지안헛습닛가 원 이곳사람들은팔분이지그실상들이업고 아죽도동이르는지 닭이우는지웬셈을모르고안젓드구먼이요』

몽세선생은그저 미소를먹음은채아모대답도업시 듯고만잇슬뿐이다 명재는또이야기를계속하엿다

『그런데 뎌 긔막힌일이잇서요……그래도어데를가던지로인축으로는 좌우간직히 겟다는마음과 허는일은업슬망정장래를바라는마음보단은 이저버리지안코안젓서요 그런데장래를누탁할만한젊은사람들은 몰이어자포자긔(自暴自棄)해가지고월업시날뛰는것이 더욱한심한일이에요……풍연한룸팡 까닭모르는불평만을가지고 것탈대고이세상만저주하면서 각자위시대들일흔명동으로자처하고 한탄만하며 드러누어야단들이겟지요그것이 실로히한심한노릇이고요 게다가마음들이좁아서다시그속에다른 사람하나도더용납할수가업서 배가를너노하서뉘말 마듸들어볼여지업시 자행자지하는판이다 이장래가엇지될지모르겟되엇서요』

『그것이네말이다 너무러시며들낫나지못한한식을버려야헐것아니겟니?』

명재는가삼이뜨끔하엿다 얼골에빙그려우슴을뛰엿다

몽세선생은 말을맛치고일엇난다

『여긔서 쉬여라』

이말을남기여노코는 몽세선생은안으로 들어가버렷나

『네!』명재는일어나서 선생의나가는것을보면서 며답하엿다

선생이안으로들어간후에 긔력이는명재의손을붓잡고 갓가히안즈면서 물엇다

『아니여보게 이게웬일인가자네가 왜이러고다니나?속누엇에실망이나허고 자포자긔한사람처럼뇌엇스니!』

긔택은민망한듯이 물엇다

『응그런켓지 그러나나는별로히 머 거긔며하야서는발노허고십지안으이 남이야무어라거니 내본며세상에요구가업고또세상에서 나를아죽요구치안는이상에다난 나는이러인며에나의부족하엿는것을곳처볼까하는생각뿐일세』

명재는 자락한얼굴로대답하엿다

『어듸그려치만 세상에서는그런가?세상사람들이다자네가텐서는엇더케되겟나?』

『누가 날갓흔맷나또 날갓해서아무엇에쓰게 그러나나는그래도 나의무족을고곳처나보겟다는것이지?……제무족도모른다는 엇더케허면좃켓나……물논이말노안는말일세 아죽도내가잘낫니고 잉탈하는말이나사실자네허고안젓스닛가 이말이라도나오는바일세』

『그런데여보게 그말은그만두고자네인케는 여긔잇게조혼도리가잇네 서울서도××운동이일어나고 각처에서도모다들일어나야단들인데 자네도여긔서가티 일좀해주어야 헐것아닌가?』

긔택은 명재에게 강개한빗과 다정한어됴로 이러케말을하엿다 그러나명재는 태연히대답을하엿다

『실혀! 아죽머럿네』

『무엇이?』

긔택은 놀낸눈으로 명재를보며 명재는 아모러치도안흔얼굴로 긔택을보면서 되집어물엇다

『무엇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아―니무엇이 아죽머럿다고하나?』

『아죽멀지안헛는가? 자네도아죽멀고 나도아죽멀엇고 그보다도 더욱머―ㄴ것은 우리조선민중 들이야!』

謹賀新年

[illegible]順郡廳
[illegible]順郡廳職員一同

[illegible]組合 朴奉植
[illegible]村養成

[illegible]警察署長 [illegible]山浪藏

和順面職員一同

南原郡東面 面長 金昌先 外職員一同

南原郡 阿英面事務所

南原郡朱川面 面長 韓圭夏 外職員一同

南原郡帶江面 面長 鄭俊澤 外職員一同

南原郡黑松面 面長 朴赫來 外職員一同

南原郡大山面 面長 李容默 外職員一同

南原郡阿英面 面長 吳在駉 外職員一同

南原警察署

南原郡寶節面 職員一同

南原郡畜産同業組合東面出張所 所長 細田謙次郎 技手 梁鎰燁

南原郡巳梅公立普通學校 校長 菱田齊治郎 外職員一同

南原郡周生面池塘里 尹在璇

南原郡德果面金岩里 過居 李相一

南原郡雲峰面 朴中錫

南原郡南原面 梁海潤

南原郡廳 朴元雋

南原郡廳 任殷宰

南原郡廳 吳判淳

南原郡山內面 面長 金子三

南原郡山內面實相寺 住持 南性法

南原郡金池面事務所 面長 金秉斗

全北南原邑內 全州南原間乘合自働車 南原自働車組合 電話四三番

南原郡周生面上洞里 梁海龍

南原郡廳 李廷珍

阿英公立普通學校 校長 李柱赫

南原郡雲峰消防組 尹正淳

南原郡邑內錦橋里 南原自轉車商會

南原郡巳梅面梧新里 柳銓

南原郡金池面甕井里 金在春

南原雲峰面 面長 朴重模 外職員一同

南原邑內錦橋里 元興堂印鋪

全北南原郡南原面市場 共信酒類製造場

全北南原 改名 金奉完 址洪

全北南原 吳珊紅

全北南原邑果樹園隣路 各種料理 初日館

南原郡山東面 朴彰烈

延米販賣 引受委托 群山興業商店 南原支店 電話五二番

全北南原郡大山面 黃義澤 趙漢喆

全北南原郡[illegible]里 張柄俊

全北南原郡南原面 鄭光玉

全北南原郡雲峰面 崔泳煥

全北南原郡雲峰面 朴勝民

全北南原郡雲峰面 朴仁峭

全北南原邑下井里 南原印刷社 電話[illegible]番

金池公立普通學校 校長 金永[illegible] 外職員一同

[illegible]公立普通學校 校長 金子寬 外職員一同

南原公立普通學校 校長 井上優 外職員一同

南原郡巳梅面 面長 邢仁燮 外職員一同

南原郡德果面 面長 李愚 外職員一同

全北南原郡巳梅面 李教恒

全北南原郡雲峰面 朴禧沃

全北南原郡雲峰面 崔奇煥

全北南原郡帶江面沙石里 無名氏

全北二白面事務所 面長 安教鎬 書記 金正默 書記 梁相膺 書記 李準斗 書記 安允永

朝鮮社會運動槪觀 (二)

一千九百二十七年을回顧하며

權泰錫

그러면 朝鮮運動過去에잇서서 서울 火曜等集團을除外하고다시엇더한 集團들이 無產階級運動을하얏다는말인가? 아니 過去는그만두고 現在에잇서서는 在來의사람 火曜그들以外에 누구들이 無產階級運動을하고잇는가? 過去運動을全否認하는左友派氏等을하는氏의理點은 다시氏等이敢하지안는?만일過去와現在에잇서서 서울과火曜等의運動을 全否認한다면 氏는朝鮮無產階級運動의勞系를 果然어데서찻을것인가? 그리고 氏들의눈에는 서울 火曜等團體가朝鮮無產階級運動에 全功勞를가젓고 또가지고잇는것은全然보이지아니하고 다만그派爭의一隅만이보이는 그理由는果然그어데에잇는가?

五、歷史의捏造

우리는過去를잘批判함으로부터서만 앞으로잇는새運動을自信잇게展開할수잇다 그럼으로過去批判의要求그것만도벌서우리運動의進步이다 그러나過去批判으로부터새로운展開들어들수잇느니만큼 만는그批判이錯誤된다면 새로운展開에多大한影響을끼치게될것이다 그럼데한참동안過去運動批判에熱中한諸氏들은果然如何한批判을가젓는가?

過去批判의理論을만이『派閥撲滅』『方向轉換』의兩題目을中心하얏는데 派閥問題는別條로서取扱하고 여긔에서는다만方向轉換을中心으로한批判만에限及하려한다 三勳氏는말하기를『한말도말지면 從來의局限되엇엇든經濟鬪爭으로부터 政治鬪爭으로轉換입니다 勞組合組織이最高의日常事業이엇고經濟鬪爭이唯一의關心事이엇고政治運動은無產者로서는입에도담지못할말이라고意識해온것입니다『우리運動의過去形態가經濟鬪爭에局限되엇든限에는 우리의意識도그것에相應한經濟主義的이엇섯든것은事實입니다』(朝鮮之光六十五號)의一般社會主義者는 朝鮮에잇서서政治云云하는者가잇다하면 그에게閔元植流의自治派라는烙印을눌는것만으로서滿足하엿습니다』(現代評論五號)

韓林氏는말하기를『最近朝鮮無產階級運動線上에서 方向轉換의소리가提唱되엇다 即朝鮮無產階級運動의全體로보아서部分的이엇스며 自然生長的이엇든經濟鬪爭으로부터全體的이며目的意識的인政治鬪爭으로 方向轉換을轉換하라는소리이다』

諸氏의批判要領으로서 三 朝鮮運動은 經濟

는말이다 經濟鬪爭은單純한勞動者組合鬪爭이다 近代的意義이發達되지못하야 勞働階級이자못다하야도過言이아닌朝鮮運動의過去에잇서서 그두각들이어데에서 經濟鬪爭을하엿다는말인가? 勞働者로서의經濟鬪爭은浪泉이嗽々할必要도엄고또는어느社會主義者個人及集團이어느新聞 雜誌 演壇에서經濟鬪爭을高調하얏다는말인가?朝鮮運動過去의史實에서는그一片의材料도어더볼수엄다

或이곳저곳에서數千人의勞働者들이同盟罷業을한일이업지아니하엿다 그것이經濟鬪爭이아님수업다 그러나그것이朝鮮過去運動의 一片일지언정 朝鮮運動全體가그것일수는엄다

그리고朝鮮人은그處地가處地이니만큼 다만大有產級의反動部隊를除外하고는 大衆全體가모다 政治的反抗要素이다 그럼으로數十年來의歷史는 모도가政治運動史이다 民衆의一般的報道機關인 各新聞雜誌外지도모도가 政治的暴露 反抗을意味하지안흔것이엄다 이것은新聞雜誌의營業眼으로서의 大衆의政治的反抗意識을 잘觀察하게되는까닭이다

朝鮮運動過去에잇서서 누구들이어데에서 엇더한方式으로서 政治運動을拒否하엿다는말인가? 氏들은엇지하야拒否한그事實的條件을들지못하는가?

六、小뿌르조아的中間派의蠢動과理論의混亂

××的理論이업시는 ××的鬪爭이잇슬수엄다 지금아리에게는 理論鬪爭을積極的으로展開하여야할時期가왓다 그래서最近朝鮮에는 이미理論鬪爭이展開되엇다 이것은우리運動의進一步가아니라고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理論은 實行의案內이니만큼 만일理論에잇서서錯誤가잇다면 될아서實行에잇서서錯誤가잇게된다 그럼으로故意的으로 不當한理論을提唱하는者가잇다하면 그것은運動에잇서서 큰罪惡인同時에 우리는運動을爲하야 그罪惡에對한適當한刑의宣告를내리지아니치못할것이다

나는最近에東京을 그根據地로하야일어난 一月會派그들이理論鬪爭을高調함으로써 朝鮮運動에그만한功勞가업지안타고한다 그러나그들의理論鬪爭을高調하는 그本意는運動을爲함에잇지아니하고 다만自派構成과및그派史創造에잇슴으로 그 [illegible] 몰이어朝鮮 [illegible] 것다 그

一、『派閥撲滅』
二、『方向轉換』
三、『理論鬪爭의展開』

運動의假面을쓴 이만 標語는 能히一時的이나마 大衆을欺瞞 眩惑할수잇섯다 그래서 이標語가運動線에露面되자마자 곳大衆은魔醉되지아니치못하엿다 나는여긔에서 小뿌르조아的中間階級그들이機會主義的으로 機會를窺察하는데에가장敏銳함을잘알앗다 그러나그魔醉劑의魔力은一年以上을超過할수엄섯다 大衆은이미그魔醉로부터覺醒하엿다 그래서그魔醉術所持者의罪惡暴露에着手하는中에잇다

그들의怜悧한機會眼은大衆의要求가統一에잇고 派閥과派爭에잇는것을잘觀察하얏다 그래서魔醉劑 使用하기前에먼저大衆의神經을興奮시키기爲하야派爭批判時期에第一着으로 지독한『派閥撲滅』이라는일홈의武器를색려다 그다음에一月會의派閥撲滅에關한宣言書를비롯，하야그魔手는次第로 大衆압헤亂舞하며『過去運動은全』派閥運動』이라느니『過去朝鮮無產階級運動은派閥主義에 姦淫을當하얏다』느니『在來의서울 火曜等派閥運動은 朝鮮無產階級運動과아모關聯이업다』느니 團體主義』엿느니하는 在來로歷史잇는運動者와 달아서 在來로歷史잇는朝鮮運動을全然抹殺하는왼갓呪文을咩號하기에熱狂하얏다

만일그들의말과갓다면 過去朝鮮運動에서는社會主義運動이업다는말인가? 오즉一月會派가나온以後로부터처음으로朝鮮無產階級運動이잇섯다는말인가? 만일過去에도社會主義運動이잇섯다면 서울 火曜等團體를除外하고 그어느團體가社會主義運動을 하얏다는말인가? 아니지금에는 在來의서울 火曜等系統人物들以外에누구는이運動의中堅實力이라는말인가? 在來運動의 多大한犧牲과功勞가서울 火曜等團體에 잇지안코그누구에게잇는가?

그들은『派閥撲滅』이라는標語로서 過去를全否認하는自派의成功에滿足을어덧지만은그러나過去否認이目的이아니고 오즉運動에만 要求잇는大衆을압프로 더愚弄하야 自派의擴大한根據를엇기爲하야서는 다만派閥撲滅의標語만으로서는될수업서서 또는自派的運動方針을假面的이나마 大步압허表示하기爲하야서는 다른某種의標語가업슬수업섯다

方向轉換과理論鬪爭은 그들의假面的唯一한 運動方針이다 從來의運動은經濟鬪爭에局限하얏스니 그리고政治運動을拒否하얏스니 經濟鬪爭으로부터政

우리로서만일 正當하게批判하다면 從來의政治運動은多少觀念的이엇스니 지금부터一層現實的鬪爭에立脚하자고는할수잇지만은 過去에그누구들의 어데에서의運動이經濟鬪爭에局限되엇스며 政治運動을拒否하엿다는말인가? 그리고그 의理論鬪爭은 그全體가 派閥撲滅 方向轉換이다 그러면그들의理論鬪爭은 오즉派史否認과派閥史捏造가 唯一한目的과任務인가?

그들의歷史否認 捏造의常習은漸漸進步하야派史盜竊에왓다 그들은 單一黨의結成도 勞農의分盟도 實總의改造도 무엇도다自派의事業이라고宣傳한다 그러나唯一戰線黨은 一九二六年在京社會運動者新年懇親會에서 同年三月靑總各道道聯盟全國大會에서 唯一戰線에對한決議와 同年八月朝鮮民興會의發起와 同年冬에新幹會의發起또는勞農總은一九二五年冬에勞總同盟委員會의分盟決議와 勞農分盟準備委員會의組織 또는實總改造의決議等이 모도가一月會와는아모關聯도엄시 그리고一月會가組織도되기前에 一月會의存在를 世上이알기도前에잇는事實이아닌가?

그들의歷史에對한否認 捏造盜竊의 常習은，다시進一步하야 未來의歷史의先占競爭에까지왓다 그들은아즉까지繼成過程에잇는單一戰線黨에向하야 히게모니를取의企圖를宣言하엿다 그리고 獨慾에눈이어두운그 은 히게모니를無產階級自體에서求하지아니하고 다른對像에서取하려고하엿다 [illegible] 勝에배속에든아이를두고 [illegible] 다드니 그말이 一月會派의 [illegible] 에가장적確이다

運動歷史에對하야否認 [illegible] 創造 盜竊 未來의先占 [illegible] 이것은 鮮明하게 烙印다진小『뿌르조아』의『이데올로기』다

이는 한派는朝鮮에만잇는것이아니다 다른先進國에서도똑갓치보게된다 그래서다른先進國에서는이것을『만、뵈기는다고』해서엿다 그러나朝鮮의그들에게는아직까지『민스뵈긔니』의名稱을贈與할만한歷史도 力量도 體系도가지지못하엿슴으로 當分間그들을小뿌르조아的中間派라고는홈하야둔다

一九二七、一二、二八

野談 桂月香 (三)

鶴步口演

석기는꽃송이는

뒤덩으로 드려쏘는 새벽찬공기는 사람의살을 에여내는듯하였다 미러 옷독섯는 황초人불을꺼시에어실듯어실듯 꼬리만휘휘내두르나 춤을너울너울추고 섯는데 한떨기꽃송이 는 이몸미인의 달덩이 가튼 그의얼굴은 피어허트러진머리털이 가닥가닥명혀ㅇ고 잘엣 그리는 온[illegible]이가되어 집ㅇ던진가 [illegible] 무중방에걸친채로 거꾸로

[illegible] 행(進行)하야 넌긔는 뭇심내 외가랑니어보이는로부인이귀를 해삼바거잇는 그광경은 어데로본지 근심구름에쌔인 처량한 환경(幻境)그것을 그려낸것 갓다

하로아츰 [illegible] 가지나가고는 가을벌판처럼 쓸쓸하고 적막한그집의 공긔는사람의그림자하나 볼라야볼수엄고 인긔척한마듸 들을라야 들을수엄시 한식경동안이나 쥐죽은듯한정적(靜寂)상태는그대로계속하야갓다

이옥고 밧갓마당으로부터 싸드득싸드득 사람이어름덩을 밟고들어오는 발자욱소리가 새벽공긔를 뒤흔들어 이써께속해오든 정적을돌파(突破)한다 벅커ㅡ벅 쿵ㅡ하고 문에 올라서는소리는 아모리해도 장부의발자욱이 분명하다 그리고나서는정적은 다시ㅡ동안 계속된다마그사람도 이집의 괴상한공긔에는 자못경의(驚疑)를 늣겨서서슴서슴하는모양이다

조금잇더니 엇쩔한 관옥(冠玉)갓고 헌우(軒宇)가 당당(堂堂)하며 위풍이름름(凜凜)한 한큰장부가 대령으로해서 와락뛰어달려들며 괴괴쌧업흐터진 월향모녀를구원하러 우선맥을집어본다 가슴에손을너허본다 한참이리당황하더니 그장부의얼골에는 자못희망에뛰우는 반가운빗이나타낫다 월향[illegible] 히안어다가 아랫목따뜻한데여노코 손자게 월향의아랫도리를검사해보고 상처(傷處)는심힘만치 그러케과히 크지안핫다 간신이모면해서 뛰여나오 [illegible]

광을 번꽃들어 사정ㅂ시그섬약한활량의 왼쪽ㅂ져나리를 씻드고간것이엇다 그사람은옷을웬다옷자락울짓누다 불이야불이야번개가터손을놓려 섬숫듯숫아오르는 피덩어리를 막엇다 그리고나서는 월향의 모친채씨의얼골 찬물을 뿜는다 손발 주무른다 귀에다대고서 목소리크게 불러보기도한다 이러하노다니 사정업는시간은저절로지안코 지나간다동군하울에 먼동이트고 잣추는닭의소리는 사방으로서 닷투어들어온다

이윽고월향모친은한숨을길게내쉬며 여명으로 몸아눕는다 그사람은반가워서 다사다어안즈며「여보세요 이게웬일입닛가정신좀차려서 말슴을 좀해주세요」

자리우에쓰러저 누엇든월향모친 실눈을 살금떠서그사람의얼굴이 [illegible] 더한번나더흘더보더니「홍유ㅡ늙은년의 신세두험하기도하지ㅡ여보대관절ㅡ[illegible] 라월향이 엇더케된 셈이냐요?」

요아무렴려업습니다다

월향모친 이말 듯더니 엇지다 선귀하든지 유명이 변해되어두 손을쑥내밀며

「나좀날의처줄시겟나」

날어나안즈하여 와 한을 나려보고 두눈에눈물이 젹젹비오듯한다 그사람은 월향의손발을주무르기도하고 배와가슴을 치쓰다듬어 인공호흡(人工呼吸法)을 하기도하야 가진 수당(手段)을 다한다

빗고흔 아츰해는 동창(東窓)에빗초이고 듩밸에 소나무가지에는 누른빈가온ㅅ식이나 전하는듯이 까막까치두마리가 번가라지저귀일제 고요한 아랫목에고대기인제월향의 얼골에는 화긔(和氣)가 차틈면셔 긴한숨이 나색(氣色)을 둥이일코 게발붉어던진것처럼 착잡져 누어잇든월향은 [illegible]

「여보게월향이! 나좀보게! ……나를모르나? 나를……」

취한듯 자는듯 혼몽한디물배회 徘徊하는월향의넉은구름속의 샛별처럼 눈을한번 번쩍떠서두릿두릿 방안을 둘러보더니

「아이구 김……」

하는것을그사람은 얼는그의입을확트려막는다 그리고 손을확잡아쥐으며 자긔의 명을 부르지못하게 하는것만 보아도그는 이세상을 지극히 꺼리는사람인줄을 넉넉히 집작할수가잇다그리고나서는 침묵은 잠시계속되엿다「쎄드득ㅡ」빗갓대문여는소리가 들리자 그사람은불안한빗을가득 띄고 뛰여나가더니만 사과의 신발을 지고들어와서 월향모친 채씨의귀에다가 그의입을대고 무엇이라 두어마듸속삭이더니 벽장문을 화닥닥열고 벽장으로 뛰여들어간다 그에게 무슨일을 들엇든지월향모친의얼골은 쌀아간 홍빗으로변해지며 붉근날어쏘다 다시안쳣다 엇지한는지 두서를못차리더 [illegible]

눈오는날

金時勳

철음신
고요한 마음
눈오는날
울적한 가슴을 안고
나만이 홀로 걸어간다
放浪의 길을ㅡ
검으스름한 그러나ㅡ안한
울밑에
눈속히미하게 보이는
외로온나ㅡ人가기의 두마리
까치
갓득이나 마음속못이기는뜻
까악!하며 까악!하며
마음을 돈다
아아!떨리는 이몸은
넘우도 恨깁허 분간닙시
내살든 마음을 또다시
몰아 보노라

謹賀新年

瑞興郡廳 職員一同

新幕公立普通學校 校長 指愼三 訓導 李南基 同 趙聖熙 同 金達善 同 車吉花 同 佐藤エミ 同 工藤祐郎

瓶幕金融組合理事 近新一郎

瑞興金融組合理事 安處瑛

瑞興印刷所 主任 尹德彬

新幕驛前 貿易商 金基俊

京義線新幕驛前 ⊖昌信運送店 主 張相瑚

京義線新幕驛前 禾回面 職員一同

新幕金融組合長 郭奉周

新幕驛前 順天醫院長 金瓚斗 電話[illegible]番

新幕驛前 高麗醫院 東京醫學士 柳寅植 電話三〇番

新幕驛前 新成商店 外國白米 取賣及修繕 各種時計 貴金屬 主 朴吉植

安岳面延城里 金龍濟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延安面植井里 安岡莊藏

延白郡延安邑 米穀雜貨及材木商 金喆培

延白郡延安邑 延城醫院

延白水利組合 井上繼治郎

延安邑內 裵東燦

延安邑植井里 全根浩

延安面山陽里 朴[illegible]

延安面延城里 金石崇

延安面植井里 曹渙瓚

延安邑內司法代書人 朴榛然

延白郡延安面延城里 方山琇

延白郡延安邑 司法代書人 劉貞夏

三福丸 延豐丸 延子丸 延安汽船株式會社 電話四一番

延安邑西門通 仁和盛

延白郡延安面延城里 全世俊

元緊聖

黃海道延安 三和商店 電話一四番 振替京城[illegible]

延白郡延安邑內 東華齒科醫院 齒科醫師 朴俊遠

延安邑內 同和運送部

延白郡延安邑內 司法代書人 金演衡

延白郡鳳北面院東里 金景泰

京南線槐山驛前 穀物貿易 肥料藥粟商 委託販賣 東昌商會 ㊐東昌運送部 主 趙東律

京釜線天安驛前 穀物貿易及委託販賣商 益昌商會 主 裵明善 電話二一七番

京釜線天安驛前(溫泉里出入口) 紬布 雜貨 各種鮮魚商 金俊浩

京釜線天安驛前 穀物貿易商 崔完植 電話一〇六番

忠南天安 朝鮮料理 長春館 主 李德用 電話一四〇番

忠南天安邑內 朝鮮料理 天眞館 主 金海樂

天安邑內天眞館 妓生 黃紅桃

天安邑內天眞館 妓生 趙山月

天安邑內天眞館 妓生 崔山紅

天安邑內天眞館 妓生 金花中仙

天安邑內 天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 廣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天安郡廣德面 尹泰璇 池柄元

天安郡廣德面新興里 廣德俱樂部會長 池柄龍

天安郡 豐歲面事務所 職員一同

和順郡綾州 梁會絢

和順郡春陽公普校長 桑原忠己

綾州面協議員 朱維述

和順面 金南鉉

朝鮮天安本町 株式會社 湖西銀行 電話五五三〇番

朝鮮天安 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電話[illegible]番

和順郡和順面新基里 金哲洙

和順郡內南面 面事務所

同福邑司法代書人 吳世南

和順郡外南里 面事務所

綾州邑綾州幼稚園 園長 朱基俊

和順郡春陽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和順邑蒼頭洞院 龐天慶

和順面訓里 南國逸

同福金融組合

和順郡同福面 吳鍾燮

和順共營自働車部 安永明

和順郡道谷面周道里 高聖運

永興市場前 新豐釀造場 姜明洙 林鍾賢

永興鐵道前 鎭興釀造場 趙昌元

永興郡仁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永興郡億岐面事務所 面長 崔錫律 會計 張益周 書記 朴東協 書記 朴昌憲 書記 鄭會弼

永興警察署 職員一同

永興郵便所 職員一同

永興驛前 ㊤永興商工運輸組

永興邑內 貿易商 文箕善 朴仁根 電話三一番

永興郡廳 職員一同

永興馬場驛前 五星運輸合資會社

永興驛前 永興牛車業組合

永興邑內 洋靴雜貨 永一商會 電話四四番

永興邑內 朝鮮料理 咸一館 主 朴容基

永興郡鎭興市 公醫 李材榮

永興邑內 行政司法代書人 金昌璜

永興邑內 行政司法代書人 李[illegible]

永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益山郡八峰面 面長 蘇鎭文

旅行中欠禮 朝鮮日報社 李圭英

裡里榮町 金永來

喪中欠禮 朝鮮日報社 李觀熙

喪中欠禮 朝鮮日報社 崔在高

喪中欠禮 蘇鎭文

謹賀新年

新義州□井町 李亨燁

新義州驛前 米穀商 ㊎ 丸金組 (精米)

新義州米城商事務所 職員一同

新義州□□町 崔致鎬

新義州 國境寫眞館

新義州若竹町九 安秉瑞

新義州眞砂町 金仁哲

新義州 府廳

新義州梅枝町八 朴浩呈

新義州常盤町 新義州木材運送株式會社 電話七四九番

新義州合資□護會社 社員一同 白 電話□七〇九

新義州雲井町 田素紅

新義州郵便局 職員一同

新義州老松町 金宅泳

新義州眞砂町 李俊玉

□井町 殖產精米所 二六六

金□精之所 金錫河

新義州府眞砂町 東光商會

新義州老松町 李鎭守

新義州府榮町二〇 三和精米所 電話七六二

李□俊

新義州雲井町 李春桃

新義州雲井町 秦花仙

新義州 金紅蓮

新義州榮町 玄炳權

新義州雲井町 金紅蓮

新義州雲井町 金春紅

新義州眞砂町 三輪洋行

新義州眞砂町 金錫厚

新義州雲井町 趙文姬

平安北道廳食堂

新義州榮町六丁目 金元煜

職員一同

安東□□□□所 面長 徐武錫 金承漢 書記 金柄漢 南鳳出 朱昌植 權五昌 李順寧 徐穆洙

安東郡邑西部洞 綢緞布木 五昧木 東洋床 金斗鎭商店

安東邑內 綢緞布木 商合盛長

安東郡臨河面縣下洞 鄭元模

安東邑內 信成商店

主 金中學

安東郡臨河面 職員一同

所安東邑法尙洞 權五鍾

安東邑內 沈揆夏

安東郡北後面瓮泉洞 姜大極

安東邑內 和洋雜貨 婦人商店 主 劉卜童

安東邑內 高麗堂時計店 寫眞部 主 尹老岼

安東 綢緞布木商 □□

金廷植

安東面西後面 廣興寺

安東邑東部洞 綢緞布木商 德盛長商店

安東邑西部洞 支那料理 安樂館

安東郡守 朴光烈

大邱銀行安東支店 職員一同

安東邑東部洞 尹佐衡

安東郡西後面亭田洞 鶴北講習會 職員一同

安東邑西部洞 綢緞布木商 源生福商店

安東邑西部洞 綢緞布木商 扶聚永商店

安東道立醫院 職員一同

安東邑西部洞 支那料理東華樓 主 劉增三

安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郡北後面瓮泉洞 昌盛堂醫院 主 姜大一

安東郡豐西面佳谷洞 權寧默

安東邑法尙洞 金美順

安東邑新世洞 千中根

安東郡吉安面泉旨洞 吉安醫局 主 白泰欽

安東郡禮安面西部洞 柳基泰

安東邑□□洞 □南醫院 院長 權寧燦

安東邑東部洞 □□商 李仁均

文川郡廳一同

文川郡都草面□時里 李在觀

文川郡雲林面事務所 書記 金應澤 書記 朴林夏 書記 金興斗 書記 崔應九

文川郡都草面補木亭里 朴德順女史

文川郡都草面補木亭里 李在善

文川郡雲林面新倉里 李秉協

文川郡龜山面秀時里 張庚讚

龜山面麗坡里 鐵鉱酒造所 主任 金秉鎰

文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文川金融組合一同 理事 金永彦

文川郡都草面新坪里 李奉淳

璘 日 在 知 浩 □ 燮

明孝面事務所 面長 鄭均星

文川郡都草面龍井里 李在謙

文川郡郡內面事務所 會計員 金鍾甲

文川郡郡內面□□里 黎元秉

文川郡郡內面玉坪里 全永淳

都草面新□里 趙周元

文川郡雲草面新坪里 李奉淳

文川郡都草面川內里 □□□□所 講師 康衡錫

文川邑內 司法代書人 安重鉉

文川郡郡內面玉坪里 鐵物工場 主任 朴範洙

文川郡郡內面玉坪里 司法代書人 崔錫泰

文川郡都草面川內里 日新理髮館 主任 金河泰

文川郡都草面文峰里 朴致善

文川郡雲林面森林保護區 獨孤烈

文川郡明孝面魚項里 文興商會 乾生□貿易主任 劉延豐

德源郡北城面新安里 海星講習所 講師 李遠根

德源郡北城面新安里 海星講習所 講師 李容煥

文川郡都草面米谷□ 書記 趙載漢

文川郡龜山面上坪里 朴根善

文川郡都草面陵前里 金成浩

文川郡草面陵前里私立東明學校 職員一同

李王職文川森林保護區 韓斗燦

文川郡龜山面事務所 宋良辰

文川郡明孝面石田里 米穀及雜貨商主任 鄭然昭 鄭均寰

文川郡都草面事務所 鄭俊和

文川郡龜山面新安里 私立進明學校 校長 安容九

文川郡龜山面豐田里 豐田醸造所 黃冀駿 □同

文川郡都草面寸仁里 朴昇煌

文川郡明孝面石田里 鄭均奭

德源郡北城面秀達里 李淳坤

北城面事務所 鄭連鳳

文川郡明孝面石田里 鄭均昇

文川郡都草面川內里 布木及雜貨主任 鄭□均

文川郡龜山面秀時里 □ 鄭□

喪中欠禮 文川郡龜山面秀時里 權鎭孝

勝內里 許善九

晋州 姜復淳

永信洋靴店 孫龍伊

飛鳳洞 黃昌秀

勝內里 許萬正

晋州 趙鏞權

班城 李慶鏞

晋州 公立普校長一同

文山 廉東燮

平安洞 趙顯璐

宜寧 金璂淵

錦町 姜雲秀

晋州 市場精米所

晋州 鄭昌鳳

晋州 姜千秀

飛鳳洞 鄭台範

晋州 米友俱樂部

班城 韓禹源

晋州 福盛旅館

市場 朴起用

晋州□□ 金東準

晋州□□ 妓 金雲仙 朴素香 李雪香 林錦春 卞眞紅 李月桂 朴玉順

晋州 慶一商會

平安洞 金敬澤

班城 全順祚

晋州 趙鏞泰

井村 秋基洪

寺奉 鄭在華

勝內里 許治九

淸源里 李吉浩

晋州錦町 元昌藥房 主 元準玉

飛鳳洞 趙鏞夏

上谷里 河永珍

玉城洞 李章喜

寺奉 李鉉德

晋州 實業春秋會

晋州 淸水佐太郎

平安洞 榮一病院

平安洞 李鍾南

平安洞 玄奭健

平安洞 金思永

晋州郡局 □

晋州 金斗台

晋州 面長 桂登利藏

晋州 金鉉國

晋州 金玉珠

晋陽郡下南面守山里 李在震 李仁鉉

晋陽郡下南面守山里 金容煥

晋陽郡下南面守山里 下南面長 河尙晶

晋陽郡下南面□□里 鄭□浩

晋陽郡下南面巴西里 李志衡下南支店

晋陽郡下南面大司里 大南商會 主 金相哲

晋陽郡下南面大司里 朴鳳□商□

晋陽郡下南面大司里 金達永

晋陽郡初同面檢岩里 李壽敏 李根秀

晋陽郡初同面大谷里 尹一鉉

晋陽郡初同面五方里 朴琪熙商店

初同面事務所 職員一同

下南水利組合長 晋陽郡下南面巴西里 閔雨植

晋陽郡下南面守山里 守山米穀商會 主 蔣晋植

下南面事務所 職員一同

晋陽郡下南面守山里 雜貨、材木、川船運送業 主 金龍甲

晋陽郡下南面守山里 金海商店 主 金龍永

晋陽郡下南面守山里 進永日省醫院守山出張所 醫師 裵銀基

晋陽郡下南面守山里 曹道光商店

晋陽郡下南面守山里 安澤仁

晋陽郡下南面守山里 全利漢

晋陽郡下南面守山里 野脇貢

晋陽郡下南面守山里 松本榮一

晋陽郡下南面守山里 東亞日報支局 金在生商店

晋陽 □□ 同鄕會

初同水利組合 理事 右野寬一

夢寐에도그립든 三千里槿花園아!

【三】 海外客窓에서螢雪功닥다가 歸國後初春맛는名女流

家事科를尊重하라 急務는女子專門學校

金弼禮

불과삼년반에 몰아온 나로써부슨느번한 감상이잇겟습니다 그러나 사별삼일(士別三日)에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말과가티 그동안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만흔

변동 이잇스이만큼 고국에 몰아와ㆍ첫해를 마지하는다에게 소소간념느든 회포도잇스려니와 외국에서본바 늣긴바를가지고 조선사회에 희망하는바도

잇는것은사실입니다 내가교육자인그만큼나는귀국하는첫길로 즉시교육계도가 얼마나 향상되엇는가를 관찰하지 안흘수업섯습니다 내가 공부한 미국에서는 그래도 학교선생더욱이 중등뎡도녀학교선생은 거반다녀자올시다 조선에서는 이와반대로 가사(家事)재봉(裁縫)수예(手藝)등을가르치는 선생외에는 녀자가 매우드물읍니다 그런데 녀자의 중등교육을 전부 남자에게위임을시키면반드시틀림한뎜이 만흔것이올시다 그럼 인이무엇이냐하면

례를 들어 말하자면 수신(修身)이나 생리(生理)가튼과정은 남자가ㅅ 든치기에 곤난한일이 적지안흔것입니다 구레뎍으로말하자면뎡조(貞操)문데가든것이나 요사이한참고도(高調)하는성교육(性敎育)가든것은 남녀가 마조안저서 적나라(赤裸裸)하게 이야기하기어려운것이아닙닛가? 만약 말하기어려운뎌지 말하게된다면 벌서그들에게는 례의가업서지고 도덕이어그러지기 쉬웁니다 이것은 고의(故意)로되는것이아니라첫재남녀가ㄱ터안커 그런말을하게된다면 먼저 흥분이되는까닭이올시다 그럼으로 아모리적나라하 말을하여도 서로하등의 감각도 벗지아니할녀자가 가르처야만되겟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중등 학교를 맛치게 되는여에는 누구나 자긔의장래방침을 부모와선생에게 의론할수밧게업습니다 슬하에서 교육밧든 생도의 압흘지도하는 뎜에도 남녀선생의 차이가 생기리라고 나는생각합니다 현재 조선사회가 남자중심인만큼 남자들은자긔들의 편리한대로 녀자를리용하고커하는그런지에서자연히지도하게되는것이올시다그럼으로 나는 무엇보다도 조선에녀자대학이잇서서 중등교원을 만히양성하여야겟다는것입니다 왜한필 우리나라에 녀자대학이 잇서야만되겟느냐하면 첫재는 조선의 경제상태로 보든지 아즉외지봉건뎌사상(封建的思想)을그대로 직히고 잇는사람이 대다수됩니다 뎍하는것으로 보든지 남자보다도녀자의

외국 류학이 훨신뎌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ㆍ리나라에 녀자대학이 잇스면녀사가 뎐문교육을 벗기가 지금보다용이하게될것을 압니다 둘재는나회어려서 외국에가게되면 혼인시부모의 구속을 벗지안는것만조케녀이고 자유자재로 지내게되는것이올시다 사람은 환경의지배를 벗기쉬움으로 어느듯생활이 방종하여저서 잘못하면타락하는디경에까지 일음니다 이두가지원ㄴ으로 보아 조선안에녀자대학이 잇서야만될 필요(必要)를 실니늣깁니다 그리고 ?문교육중에도가사파(家事科)를중?하는이가 만키를 바랍니다 ?선녀성들은 가사파라면 시시부시한것으로만 아는폐단이 잇서서외국에가서

전문 학교를마치고 오는이들중에도 가사파를 공부한이가 매우적습니다 돌아서 서양학교에서는 가사교사를 구하기가부엇보다도 곤난합니다 이것은녀다 녀자가가사(家事)에 대한공부는 하는것이 웨시시부시하겟습닛ㄱ 살림사리 안하는집이 어되잇스며 살림사리 안하는사람이 어듸잇겟습닛가? 조선녀성ㄴ 과거생활을 돌아보면 살림사리는 과연 고역이엿습니다마는문화가 발뎐된데에잇는 녀성으로써 생활의개량을 도모하고 가뎡을노터 더 자미잇고보다더행복하게 만들면 살림사리가 고역은고사하고 얼마나 행복을 늣기는 고상한 직업이될는지모를것이올시다 나는녀자가 가사를처리하고 한집안의 주인이되어남편의 사업이나 자녀의학업에돌도업는 원동녁이 되는것을 영광스러운 텬직으로 알지안흘수업습니다

미국 서는가사파를대단이 존중히녀여서 가사파를 공부한이에게도학박사(學博士)의위를 줍니다 그리우든 내영에돌아와서 첫해를맛는나로써 가장희망하는바는 조선에완전한 전문교가 생기게되고 뒤어서가사과를공부하는이가 만히 질것입니다(속)

朝鮮家庭도文明風 먼저厨房改良부터

金淑培

일천구백 이십칠년도 벌서다갓습니다 금춘에단순하고 의미깁흔한생생활을 맛치고 이제부터 실사회에 나아가 일을종하야보겟다하는 희망과 동경을가지고 귀국하야 교원생활을한것도 일년전일입니다

실디 로귀국하고보니리상과가티 희망파가티 되지는안습니다 오년ㄴ에정성서 하생생활헐떼와는 서울도만히 변하엿슬니다 문명하여감니다 이에따라 번화도 하여지고 길에도남녀학생이 중 된것갓습니다 녀자도 시대를따라 배워야하겟나 배우지안흐면 안되겟다는것가티 보입니다 이가티새것을 배우려하는지식욕이 만하진것은 참으로 깃븐일입니다 조선의 장래를위하야 그러나이문명의 바람이우리가뎡에도 종불어왓슬가하고 보니 가뎡취미든지 오락에대한뎡이든지 만히넷적과는 다른것갓사오나 그중가뎡부인이 중요한책임을지고 잇는방면은 개량

부인 은밥이나짓고빨래나 해야되는것으로 ?엇다든 시대와는 다른현시대를 어??? ... 인의범생이 무의미하여지고말아버리는것 갓습니다 어쎄면 은가뎡에서 원만하시는 부인도 시간의여유를 어드서 자긔몰뒤하야 수양도하여보고 사회와연락하야 일을하여볼가요 여러가지다른방면도 개량을 요하지오만은 규선누는 부인이아동커녀으로 일하시는곳 즉부엌을개량하여야 할것입니다 누구나다 최소의 노력을가지고 최대의결과를엇고자 하는마음은 잇슬것이외다 녀라 조선부엌은 적합할가요 무엇으로말하면 사람의원력을공급하는중요한료리를

만드 는곳입니다하엿든들이 원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될것입니다 그런하야위생뎍으로보는시 경제뎍으로 보든지 불완전한뎜이 만흡니다 시대는변하여야 과학이발뎐되어 녜져에업는것이 발명도되고 발견도되엇습니다 즉가뎡에는 이과학을 응용할곳입니다 과학을응용한다면 상당한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하야는 배워야하겟다는 지식욕이만흔것이 조슴니다

현재조선 부억을 개량하려면 여러가지 되지안흘 사정도잇지오민은 더욱이경제방면에 허락되지못하는뎜이 만흡니다 그럼으로 이것을한번에 만족하게하라면은 어려움으로 오만은 뗏해를두고라도 ?꼼식단위들 개량하여가면는 조흘줄압니다 일부분에 어뎌가뎡에는

개량 된곳도잇지오만은대개는 현재부억은 영우에심히게되엇습니다 이것은 건강위생뎍으로보아 조치못한뎜이 만습니다 그리하고 부억안에설비가 불완전하기째문에 왓다 갓다ᄀ 허리를우부리고 일을하는고로 힘이만히드는것 갓습니다바람이불거나하야 불이나내이면 먼지를 뒤집어쓰고 눈물을흘리면서 분주히 단니시는것가티 보임니다 어느덤으로 보아서는운동이되는것 갓지오만은 도로혀해로울줄로 아옵니다 그러한고로 부억안에완전한 설비는필요합니다 그리하고

간단 히살님사는것이조흘줄압니다 음식으로보아도 만히여러가지를 벌너놋는다고 노력을허비치말고 한가지라도 자양

女名流略歷

米洲, 日本, 濠洲에서 各大學卒業

◇허뎡숙(許貞淑) 녀사는조선녀성운동에 만흔 활약을하다가 재작년 류월에쎄계일주려행의길을떠나는그부친 허헌(許憲)씨와함께미주(米洲)로 건너 ... 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 어학을 공부하다가 작년십일월하순에 귀국하엿다

◇류영준(劉英俊) 녀사는작년십일월에동경일본녀자대학(日本女子大學) 사범과(師範科)를졸업하고 돌아와서 현재동덕(同德)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잡고잇스며

◇김숙배(金淑培) 녀사는작년삼월에내량(奈良)녀자고등사범학교가사과(家事科)를졸업하고 귀국하야 방금시내숙명(淑明)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잡고잇고

◇신효숙(申孝淑) 녀사는일즉이리화(梨花)녀자전문학교를 마치고 ... 미주로건너가서 오하요 ... 대학과를 맛친후 엠에이학위를 엇고 작년십일월에 돌아와경성에서휴양중이며

◇김필례(金弼禮) 녀사는 동경녀자학원 高문과를 맛친이로써 미국미시칸대학 文과를 졸업하고 또 뉴욕컬럼비아대학교육부연구과를맛친후 역시 엠에이학위를 어더가지고 작년구월에 귀국하야광주(光州)수피아(須彼亞)녀학교에서교육사업에노력합니다 그외에도 호주(濠洲)에가서 『껄, 스카웃』(少女軍)조직에대한것과유치원보모양성에 관한것을 공부하고 작년십월에 귀국한 ... 녀사와 가튼학교양화과(洋畵科) ... 녀사가 귀국하엿습니다 그녀들의 소감을여괴할께소개치못하게된것은 퍽유감이올시다(一記者)

米洲女性을들어 朝鮮女性에게! (二)

許貞淑

이나라敎育制度는 中學校外지는 男女共學으로 工夫하고 大學까지도 (村파또는都會地에 큰大學을 除한外에는) 共學하게되엿 敎育의不平等도亦是 別로업는時期가 되지안는다 또 그나라의 學校施設이 畢業後에는能히就職할수잇게 되엇슴으로就職에 對하야도그리큰差異를發出식이지안는다 米洲의 女性은結婚前에는 大部分이職業婦人이다 智識程度를말아就職하여가지고 經濟的獨立을하는故로 그들의個性의 自由發達은머리ㅅ끗까지膨脹되어잇다 이點이그女性들에게 個性의自由스런發達도주지마는이와同時女性에게 越權의行動과 傲慢을助長식힌다 그럼으로 自由도 軌道를버서나서 橫行하게한다 그들의 自由觀念은 女性이라는것은 天賦한 處世의武器로서 自己네만이가지는 自由가티 想覺하여 自由放縱의온갓行爲로世上에暴露한 것이다 女性이란가장큰武器인것가티 街路에서든지男子가誠失數가잇는데는먼저 『나는婦人이다』하고 나어서責亡을하는것이다 女性은半人間이니 靈魂이업는니 靈魂노種子 만이엇나니하야 人間으로서의 女性資格을 蔑視하려고 여쓰니男尊女卑로 男性의 武器를삼는 東洋의男性과는正反對의 觀念을가지고잇는것이 米洲의女性이다

◇

女性이란것은 萬能의主宰로自信하는 態度가나타날예도적지안타 人類社會에는 絶對平米二米一 이오 女尊男卑나 男尊女卑는그理想이아니다 如斯한不等 피自由를가진 그들에게徹底한 富强과行動이잇스면 또다시物論할必要가잇스나 이自由平等 思想이矛盾이되어 自家撞着의 行動이잇슴에야 엇지하라地位나 權利로平等이라면그行動도 平等이래야 할것이나男性에게 對함에는 化粧과衣服等點의온갓參事로 어엿한人形이되어가지고對한다 女性은 男性에게 社會的으로 對等의地位는잇다 自由하면서도 個人的으로 一個의愛玩하는人形으로對하는것이다 이것이그思想의矛盾된點이다 經濟的으로 獨立하엿다할지라도 그것은 獨身生活에뿐이다 結婚에들어가서는 반드시 金錢條件이 先出하는것을보아서結婚과 經濟的獨立이相關되는것을알수잇다 男性은女性들의온갓好奇心과虛榮心을充足식힐物質을供給하는것이義務다 이 奬勵로實行할能力이업는男便은 그權利를 喪失한人間이며同時에안해까지 업게되는것이通例이다

◇

國家가漸漸더 資本主義化의極致에到達하는이만큼 女性의地位에對한執着이 드짐허간다따라서 모든事物의條件이 金錢우에서 玩弄되는것이다 結婚에는 ... 離婚에는 離婚보다金錢이 ... 一九二六年度의 米洲의離婚數는十八萬組를 突破하엿다 金錢萬能의思想은 그女性들에게허내임수업는 同胞的思想을너허주엇다 그들의虛榮心 好奇心 利慾心은 金錢이아니면 充足식힐수업는것이다 金錢만잇스면自己를美人으로粉裝할수도잇고 享樂으로生活을할수도잇스며 金錢을통한 그所謂遊戲事業도하고敎育事業도 할수잇고政治運動도할수잇다 또온갓 名譽를自己에게로 오게할수잇는것이다 女性들의 天賦로 그러하려니와社會的環境과 經濟的條件이그들을 金錢의 ... 化하게하는 이다

亂影 (七一)

崔獨鵑 作 安夕影 畵

크리스마스ㅅ날三

『요셉얼마나 분주하십닛가』 래는비는 다되서봉?』

용구는 일부러혜원의얼굴은 이야기를어깁어내여 혜원이 어내리는 피로운청북에서 헤여나려하엿다그것은 혜원을 피롭게하기위하여나 혹은노정거리가 위하여하는말ㄷ 결코아니엿다 주저할내서는 ㅈ이업는가로막힌 장벽을정면으로 부딋침으로써 피차의가슴의평정을 엇고자 하는데 뎡안해결이엇다

용구의 뭇는말에 헤원은 얼골이 회근ㅣ럿스나 두고두고 간지리는것보다는괴롬이 시안엇다

『나는돌나요』

혜원은나치 어린애가 응석하는어됴로 대답을하고 자긔의눈를 을내더다보앗다 『아니나는부엇을노튼다구햇슬가? 지금자긔의어색한대답에보충이나하려는 드시숙여든고개를들며

『용구씨 커들미워ㄱ시지요패人심히생각하시지요?』

용구의본을 밧아서될수 엇는대로활발하게 말을해노려 하엿스나암만해도응성이뽈니고말ㅅ이가놀고흐리여 지는것을 엇더케할수가업섯다

『남미워하구 말ㅜ요커주하지요결혼식장으로 내가맛친 드시고앙을치고 달녀갈걸! 하하하 그러면혜원씨ㆍ섭겟지ㆍ 그러나며러마시요내가미소로써당신들에결혼을축복해줄터이니...당신들의결혼식 날은내가 백사컨폐하고 맘석의ㅅ광을 엇으렵니다그래서 당신의면사보 쓴얼굴에다쌀을색리고 꼿을색려 주고야말겟이요 ... 공이나핑은색귀졍하여야하한』

『그만두서요 용구씨에게축복밧는것은 괴로워요 축복을하시겟거든 집에게서서 혼자해주ㅅ요』

『그건웨그래요 결혼식에는웬만치친한 친구는 물론못낫만 아는사람도 참예하여 축복을하는데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에안간대서야 말이됨니ㅆ가? 혹은생각할는지도 모르지만 나는그식예간다는것은인성구리나바보로하지안흐면 못난짓이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잇지요 ...

(行使) 아닐뿐더러 의무리행(濫行)은 더욱이아니나 요니기때문에커 ?이나 자밧하니까 나도커원을 쏠아사랑하는것도아니요 커 이나를 사랑치안는다든가 사랑치든중도에 쉬나를녀나버린다 나도놀아서 커며올미워하거나 버릴수도 업는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승리라는것은 커편을완전히 내것을만든다거나 사로잡는데 잇지안코 내가완전케지나 커 을 사랑을수잇는데에 비로소 엇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간이 신년이락면 신년의승리 삼신년이 나삼십 의승리 늙생이 나면 임생의승리 는것입니다 가뎡여그 에 한쌍의 남녀가잇다구 합시다그어느한편이 커편을사랑 하기에일생을바뜨쓰산 마음을 품고사라갓다면 .것이 사랑의 승리가아니겟서요 당신은엇더케 생각허서요?』

용구는 무슨강좌나하드시 길게늘어노코아주도한밤이남으듯한표정으로혜원을마라보앗다

『커편은 다른데로간후에라두요?』

혜원은이러케반문하엿다

『그것은판ㄱ힘게엇지요』

『그러면어듸 사랑의승리입닛가흔주현심이면이지요』

혜원ㄴ 나오는줄모르게 이러케말해버린것을곧잔후회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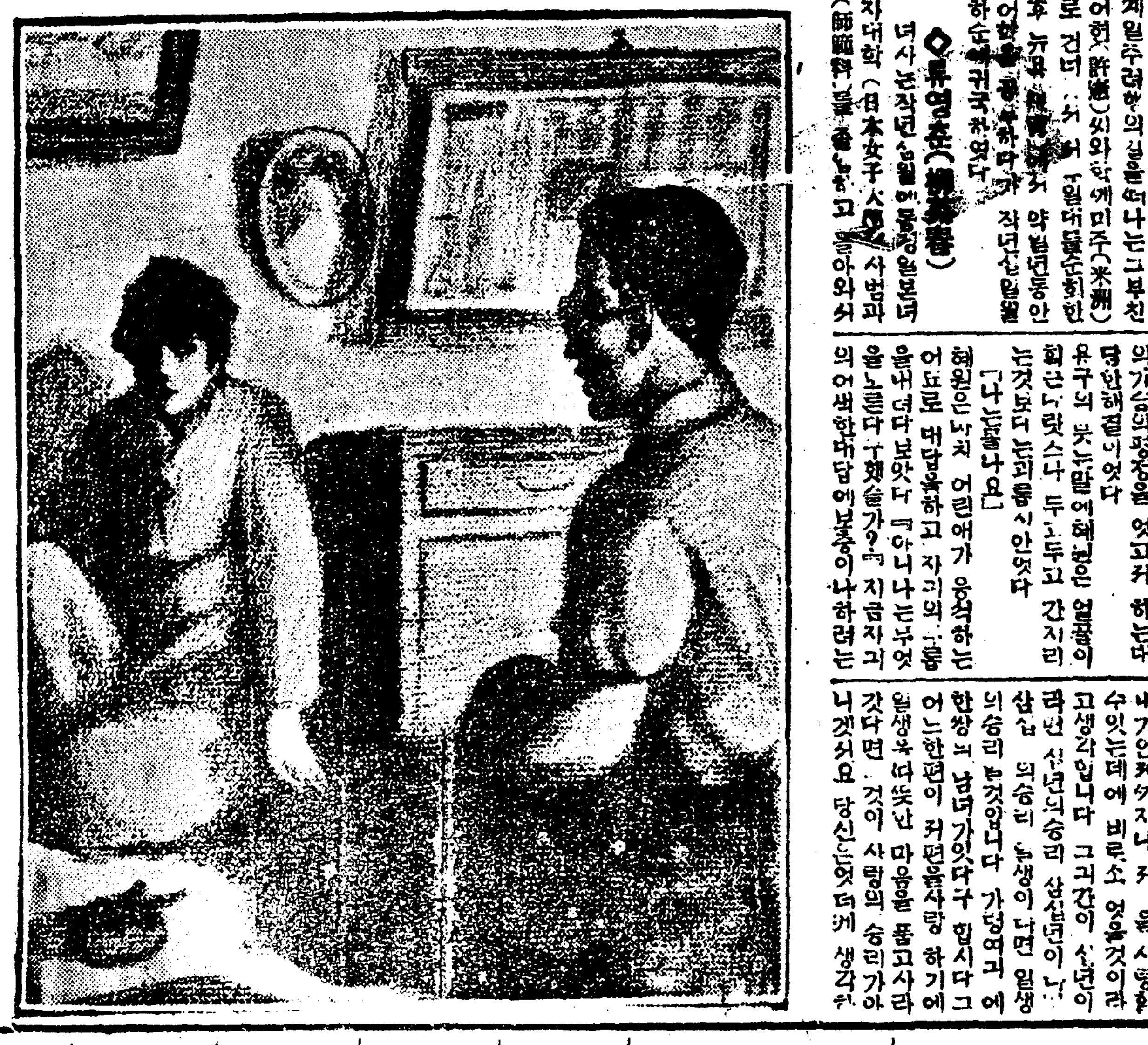
『아니지요 실연이라는것은사랑하다 사랑치못하게되는 감ㅅ에서 생기는병이지요 다시말하면극도로 사랑하든 이성을ㅜ도로미워하지안흘 수업는 자긔자정의갈등(葛藤)으로 누러밧는자긔스스로의 희생이지요 남을미워하고 커주하기커럼 자긔의감정을자극하고 적서롤혹트리는괴로운일은업슬것입니다그러니 커이 나를떠나 가드래어편은 언제까지나 커편의행복을 빌너뜻한마음을 품고잇는데아 . 것이웨실련이겟습니까』

『그런남자가 이세상에잇슬가요?』

혜원은어데까지나자긔의커다로녀자의커다에 서서이러케질문하엿다

『그것은 하필남자에게만한할것이아니겟지요 녀자라도 그럴수잇겟지요내가 이제 그런남자의『노렐』이되여어보렴니다엇써요혜원씨......』

지금까지 당해될 들고잇든용구의올혼손이 혜원의 무롭에노히혜원의손우에ㆍ노치엿다



泗川邑內宣仁洞 陳甲生
邑南面新復里 ?寅鎬
邑東面豊井里 ?鍾柱
泗川邑內 新幹會泗川支會
泗川邑 有志 崔演國
泗川邑內貞義洞 崔演武
泗川邑內平和洞 裴奉柱
泗川郡守 卞榮和
泗川邑內宣仁洞 鄭鎭植
泗川邑內大成印刷所 主任 金鎔駿
泗川邑內 崔鎔煥
泗川邑內平和洞 李命鎬
泗川邑內平和洞 朴鏞洛
上邊自働車部
泗川邑內貞義洞 無名氏
金洪立
泗川邑內宣仁洞 具性祖
泗川邑內洙石里 具聖植
泗川邑內洙石里 河容守
泗川邑內貞義洞 金贊極
泗川邑內平和洞 李鶴辰

泗川郡廳財務係內 白石一郞 卞鶴榮 朴有東 金武燁 高潤潤
泗川郡廳內 李任春 姜鳳碩
泗川警察署內 署長 門脇政太郞 警部 姜皓俊 刑事 具再鳳
鎭南浦 府協議員 趙定鎬 馬載坤 李根軾 全洛鴻
鎭南浦 倉庫株式會社
鎭南浦府碑石里 元楨杓
鎭南浦府龍井里 木材商 金思永商店
鎭南浦 李鍾燮
鎭南浦公立商工學校 鎭南浦第一公立普通學校 鎭南浦第二公立普通學校
鎭南浦專賣局側 元官鹽卸賣 官鹽卸賣 叺子販賣 李圭完商店 電話六二八番 電略ㄱ又八(리)
平壤專賣支局 鎭南浦出張所
鎭南浦府廳
鎭南浦府億兩機里 全錫淳

鎭南浦 三崇學校 三崇幼稚園
鎭南浦府龍井里 三和醫院 醫師 金養植 電話五〇九番
鎭南浦新築洞 海陸產物 委托販賣 布木 紙物 各種 商 承昌商店 電話二五三番
鎭南浦府龍井里 三和勞働總本部 陸上係 海上係 電話一二八 三三五番
鎭南浦府龍井里 姜俊植 電話四二六番
朝鮮鎭南浦後浦里 中華料理 滙海樓 電五〇四番
鎭南浦府龍井里 桂麟國
朝鮮鎭南浦後浦里 中華料理 鎭江樓 電話五一二番
鎭南浦府碑石里 大同藥房本舖 振替京城三〇八四番
鎭南浦府碑石里 唯一信託社
鎭南浦府後浦里 貿易業 委托業 大正旅館 主任 鄭熺熔 電話五四五番
鎭南浦府碑石里 南昌旅館 主 張炳舜
鎭南浦府旭町二 古物賣買 安士明商店
鎭南浦府碑石里 五星醫院 吳濟鎬 林昌植 電話一六六
鎭南浦勞働組合
鎭南浦府三和町四七番 古物商 金斗逸商店
鎭南浦府碑石里七六 口腔外科 齒科一般 江南醫院 醫師 李鎬坤
鎭南浦府後浦里 耶穌敎監理會 李光允

鎭南浦府後浦里 洋品雜貨 韓秉善商店
鎭南浦府龍井里 日光洋靴店 主 金時鐵
鎭南浦府後浦里 警察科目、穀物、綿布、豆類、安田尼、亞鉛鐵、石炭、白米、原鹽販賣 貿易委託業 東亞商會 長途電話三八番 電略ト又八番
鎭南浦府碑石里五五 各種物產 委托販賣 三星旅館 主 梁元斗 電話四四八番
鎭南浦府龍井里 諸種貿易 高務商會 主 高?? 長途電話二一四番 電略コ又ム(コ)
鎭南浦府後浦里 白南薰商店 電話五四六番
鎭南浦府龍井里 龍井醫院 院長 李顯柱 電話五四四番
鎭南浦 新炭組合
鎭南浦府後浦里二五番地 貿易商 李鍾勳商店 電話四六六番
鎭南浦仲介組合 電話長一三五番 五一八番
平安南道立 平壤慈惠醫院 鎭南浦分院
場所龍岡郡大代面蘇沙里 自宅鎭南浦億兩機里 貨泉釀酒商會 主 吳元杰
龍岡邑內 公醫 金熙中
龍岡 黃龍會
平安線廣池驛前 金鳳烈醫院
鎭南浦物產客主組合 電話三六一番
平安線廣池驛前 眞泉釀酒商會 姜基煜
鎭南浦府龍井里 果物貿易 肥料藥品 海陸產物 委托販賣 果物共益社 電略ㄱ又ㅁ
鎭西浦府 諸松丸太商 李東馥 李東啟

雪城青年 臨時總會

北靑郡雪城靑年會에서는 去三十日에 同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illegible] 司會下에 [illegible] 第一期로 [illegible] 決議事項及 任員의 氏名은 如下하다더라(雪城)

◇討議

一、敎養에 關한 件

가、日曜講座開催의 件

나、讀書會組織의 件

다、[illegible]에 關한 件

二、民族的 單一黨支持에 關한 件

三、東亞日報朝鮮日報 [illegible] 人物 [illegible] 에 關한 件

四、[illegible] 에 關한 件

五、在滿同胞擁護同盟에 關한 件

◇任員

▲會長 [illegible] ▲總務幹事 [illegible]

北靑六面 靑年運動者 懇談會開催

咸南北靑新昌에서는 靑年會主催로 去三十一日午後七時부터 同會館內에서 居山、陽川、俗厚、新昌 六面의 靑年運動者懇談會를 開催한다는바 有志諸氏는 無漏參席하기를 바란다더라(新昌)

咸南北靑 新昌靑年 面單一同盟 創立을 決議

咸南北靑新昌靑年會에서는 去廿四日午後七時부터 本里 [illegible]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朴東洲氏司會下에 [illegible] 財政、經過報告가 잇슨後 面單一靑年同盟組織及 靑年會解體의 件에 入하야 長時間討論이 紛紛하다가 結局左記와 如히 決議하고 同十時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新昌)

◇決議事項

一、靑年會는 朝鮮靑年大衆의 統一的 單一組織精神을 是認하는 同時에 會體만 變更하야 面單一靑年同盟을 組織하기로 함

北靑新靑 面單一同盟 創立大會

南北靑新昌靑年會는 臨時大會에서 解體하고 面單一靑年同盟을 組織하기로 決議하엿다 함은 別報와 가거니와 同二十四日午後十時에 韓成祚家에서 面單一靑年同盟創立大會를 朴東洲氏司會下에 開하고 徐相玩氏의 朝鮮靑年運動의 方向轉換에 對한 趣旨說明이 잇슨後 左와 如히 決議하고 執行委員 九名을 選定한後 同十二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新昌)

◇決議事項

一、靑年運動에 關한 件

一、勞動運動에 關한 件

一、少年運動에 關한 件

一、綱領及規約에 關한 件

綱領及規約은 靑總綱領及規約을 遵守採用하기로 함

一、細胞團體의 所屬團體를 交涉하야 盟員을 固滿히 募集한後 來一月八日 郡單一靑年同盟創立大會時에 加盟하기로 함

◇執行委員氏名

金鼎均 金奎軾 金允淑 金龍淑 金一秀 金興在 徐相玩 李熙烈 朴東河

第一回委員會

咸南北靑新昌面單一靑年同盟創立大會 席上에서 第一回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後 部署를 定하고 同午後十二時三十分頃에 散會하엿다더라(新昌)

◇決議事項

一、盟員募集方法은 [illegible] 年齡制限 [illegible]

◇任員

[illegible]

平壤勞働聯盟 代表者忘年會

去三十日下午八時에 平壤勞働聯盟에서는 [illegible] 各團體代表者가 參加하야 忘年會를 開催하고 [illegible] 互相討議하고 同十一時頃에 散會하엿다더라(平壤)

在滿同胞 慰問金募集 高敞少年會

高敞少年會에서는 在滿同胞의 無理한 驅逐을 [illegible] 去二十八日부터 同會幹部들이 [illegible] 同情金을 募集하엿든바 去二十九日下午七時에 開函한바 金額이 三十七圓十五錢이고 同情人數는 [illegible] 六十五人이라더라(高敞)

南原靑年同盟 雲峰支會 設立準備

全北雲峰은 [illegible] 運動이 沈滯하야 오래이나지 [illegible] 南原靑年同盟의 創立된지 [illegible] 하지 못하엿든바 去二十九日午後三時 雲峰 [illegible] 에서 梁大植君司會下에 南原靑年同盟雲峰支盟創立準備委員會를 [illegible] 委員 梁大植 朴珙泰 朴祥洙 三君을 選擧하고 創立大會는 一月六日이라더라(南原)

全定平 蹴球大會盛況 武勇團主催

咸南定平郡歸林武勇團主催의 第二回全定平蹴球大會는 豫定과 如히 지난十二月二十九、三十兩日 南市場運動場에서 開催하엿는데 最後優勝團은 靑年新上 [illegible] 少年會團이라더라(新上)

檢束된 天安盧緒鎬氏 十七日出監

天安本報支局記者盧緒鎬氏가 去十二月十五日에 在滿同胞驅逐問題로 因한 宣傳文出版法違反으로 天安警察署에 檢束된 일은 旣報한바이어니와 同二十四日에 公州刑務所에 移送되엿다가 同二十七日에 [illegible] 出監하엿는데 [illegible] 天安人士 [illegible] 歡迎 [illegible](天安)

定平歸林韓門 敎育壯擧 講習所開設

咸南定平郡歸林面內洞에는 無產兒童의 敎育機關이 업서 一般이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韓氏門長 [illegible] 諸氏가 [illegible] 十二月十五日 [illegible] 講習所를 設하고 [illegible](歸林)

新幹會各地消息

晉州支會幹事會

新幹會晉州支會에서는 지난二十七日午後三時 [illegible] 幹事會를 開催하고 [illegible] 如左히 部署를 定하엿다더라(晉州)

◇任員

▲庶務部總務幹事 [illegible]

回浦音樂會로 百五十圓寄附

咸南定平郡 [illegible] 音樂會 [illegible](回浦)

南川支會準備

南川에서는 近日各處에 設立되는 新幹會支會를 設置하고저 [illegible] 準備中이든바 一月三日午後七時半 南川救世軍營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 [illegible](南川)

南浦支會幹事會

旣報=鎭南浦支會第一回幹事會는 豫定과 如히 [illegible] 二十九日午後七時半부터 [illegible](南浦)

海州支會幹事會

新幹會海州支會에서는 지난二十七日 第一回定期大會에서 被選된 幹事 [illegible] 三十日午後八時 [illegible](海州)

◇郭山支會 定期大會◇

新幹會郭山支會에서는 去十二月二十九日午後一時에 郭山幼稚園內에서 第一回定期大會를 李鍾秋氏司會로 開催하고 [illegible](郭山)

密陽警察署 過去一年間 犯罪者統計

密陽警察署의 過去一年間 [illegible](密陽)

京釜線南行 列車脫線 僥倖乘客無故

京城驛發午前七時二十分 釜山行 [illegible] 列車가 [illegible](密陽)

安岳東倉浦의 主校先生講習

安岳郡東倉 [illegible](東倉)

坡州郡에 發疹지부쓰 蔓延이可慮

[illegible](汶山)

三陟芙湖市 漸次繁榮

[illegible](三陟)

安岳邑에서 音樂會終了

[illegible]

城津크리스마쓰

[illegible](城津)

三陟聖誕祝賀

[illegible](三陟)

主日學校施賞式

[illegible](三陟)

靈光日地主 無理한小作料 支拂命令發付

[illegible](靈光)

南川救世軍營 新祝落成祝賀

[illegible](南川)

普成夜學院은 土曜少年引繼

[illegible](新上)

地方人事

[illegible]

謹賀新年

金堤郡廳 職員一同

全北金堤 金堤土曜會

全北金堤水利組合 職員有志一同

金堤 武田英二

全北金堤 金堤木曜會

金溝面洛城里 懇親會 宋在冕

金溝 張性圭

金溝面上新里 張熙圭

金溝面上新里 張鉉鐘

湖南線金堤驛前 新豊醫院 院長 鄭公善 電話三一番

湖南線芙蓉驛前 支那料理 三日月亭 主 韓龍石

金溝面靑雲里 宋太錫

湖池面 金永善

金溝面上新里 張淼圭

湖南線芙蓉驛前 合同運送部 代表者 崔守澈

芙蓉驛前 綿絲布商 大隅悅藏

湖南線芙蓉驛 黃熙鍾

湖南線芙蓉驛前 尹準炳

金堤郡白鷗面扶山里 李殷鐘

金堤郡白山面上里 鄭寅洙

金堤郡白鷗面 金俊植

陰城郡守 李海用

陰城郡廳 庶務係一同

陰城郡廳 財務係一同

陰城邑內里 陰城川郡守 朴鴻來

陰城邑內里 有志 吳天默

陰城郡廳 曹在煥

陰城面會計 南賢旆

陰城郡孟洞面長 趙璣衡

陰城郡孟洞面新敎里 任源宰

陰城郡遠南面長 宋淳永

驪州郡陵西面新他里 吉鍾均

驪州郡陵西面新他里 趙炳賢

驪州邑內弘門里 崔昌燁

驪州郡占東面元富里 黃啓烈

驪州郡加南面太平里 李華永

驪州郡康川面梨湖里 元容旅

驪州郡康川面 面長 郭在龍

驪州郡興川面下大里 夜學會

驪州郡大神面栗村里 宋鐘國

驪州邑內 本院 丁海鵬 齒科 郭潤德 驪州醫院

驪州邑內 崔秉純 電話驪州十二番

驪州郡興川面外絲里 李敏應

驪州郡占東面淸安里 農友會

驪州加南公立普通學校 校長 杉田逸夫 訓導 宮野正夫 同 金興泰 同 申配均 同 李揆奬

驪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驪州郡州內面事務所 職員一同

驪州邑內上里 黃文弼 電話驪州九番

驪州邑內上里 崔星洛 電話驪州十四番

驪州邑內上里 李重薰

驪州邑內弘門里 魚鹽穀物柴炭貿易 委托業 鍾子製造 主 吳璨根 電話驪州二十番 振替京城一三七九九番 癸東商店

驪州邑內弘門里 驪州旅館 電話驪州三五番

驪州邑內弘門里 朝鮮畜產株式會社 元寶 驪州營業所 李鍾[illegible]

驪州法院支廳構內 司法代書人 宋錫疇 電話驪州十七番

驪州邑內上里 司法代書人 徐丙郁 電話驪州三四番

驪州郡大神公立普通學校 訓導 吳孟根

驪州邑內下里 趙鏞澤

驪州邑內弘門里 車必基 電話驪州二一番

驪州郡陵西面梅柳里 朴鳳秉

驪州邑內弘門里 洋服裁縫 東興商店 主 趙炳益

驪州邑內弘門里 司法代書人 李弼奎 電話驪州三五番

驪州邑內上里 司法代書人 金澤

驪州邑內弘門里 穀物貿易 三井商會 主 林一圭 電話驪州十四番

驪州邑內弘門里 新成精米所 主 成銓永

驪州邑內弘門里 蔘茸唐草乾材貿易商 和昌堂乾材藥房 主 崔英石

驪州邑內弘門里 魚物 元商店 元泰植 元衡植

[illegible]面事務所 職員一同

驪州邑內弘門里 自轉車並鐵物商 日光自轉車店 主 閔泳泰 電話驪州三三番

驪州郡占東面玄水里 李命夏

驪州郡占東面玄水里 李建夏

驪州郡北內面堂隅里 趙根洙

驪州郡北內面堂隅里 道評議員 曹錫永

驪州郡陵西面事務所 職員一同

驪州郡廳 文吳朴俞朴朴韓崔李德有林金李秋林金崔金李白 泰武華奭俊陽容聲鍾敎 永瀨田 廣 景鍾德炳鍾萬瑚世善 善泳秉濬哲來德振常昌太直豊漢壽敎茂殷圭元雄基

驪州邑內 驪州釀造組合 組合長 金世俊 理事 金永鎭 電話驪州二九番

驪州邑內 京城驪州長湖院 驪州自働車部 主 尹平俊 電話驪州二六番

驪州邑內 京城驪州京城間 驪州石隅里間 五星自働車部 崔基鍊 崔基永 電話驪州二四番

驪州邑內 文魯奭 吳寅泰 崔[illegible]